Weekly 공감
2009 11.04
No.35(통권 136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디자인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중점기획 신종플루 확산, 신속 대응이 해결책
4대강 살리기 랜드마크, 16개 명품 보(洑) 공개
23년 만에 한국신기록 세운 육상 기대주 김하나

크고 작은 홍수를 겪었습니다

속타는 가뭄도 만났습니다

은어가 펄떡이는 강은

옛날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습니다

더러워진 강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살리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는 자손 대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행복4江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광장 · 놀이터 · 마을회관 · 시장…
늘 다니는 공간을 배려하자

김종대 건축가

얼마 전 서울 광화문광장이 개장한 지 50일 만에 3백만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다고 해 세간의 화제가 됐다. 답답한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 광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행사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나 역시 이 근처를 지날 때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넓은 꽃밭과 근사한 조각들, 시원한 물줄기가 좋아 보인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차에서 내려 광장을 둘러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게으른 탓도 있겠지만 바쁜 하루를 쫓기듯 지내다 보면 일부러 시간을 내어 광장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광화문광장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온 사람들인 것을 보면 이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온 방문객들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나에게 잘 가꾸어진 광화문광장은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는 그림일 뿐이다. 오히려 광화문의 넓은 꽃밭보다 매일 아침 만나는 버스 정류장의 작은 화분이 내게는 더 소중하고 정류장 한편에 설치된 버스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모니터의 화면에서 작은 여유를 찾을 수 있다. 버스에서 내려 사무실까지 걸어가는 동안 만나는 잘 다듬어진 보도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활력소가 된다.

이렇듯 우리 일상의 생활공간에서 만나는 디자인의 배려가 바로 생활친화형 공공디자인이다. 생활친화형 공공디자인은 어린이 놀이터에서부터 통학로, 마을회관, 시장, 쌈지공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상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시간을 따로 내어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는 이른바 '문화공간'의 공공디자인에 비해 자연스럽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감성에 영향을 끼쳐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생활친화형 공공디자인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환경친화적이라는 데 있다. 생활친화형 공공디자인은 절수, 절전, 폐품 재활용, 자투리 공간 활용하기, 자전거 타기 등과 같이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사용자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직접 사용자인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으며 디자인 과정을 통해 주민들 간 소통을 촉진하기도 한다.

공공디자인의 가치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도에 있다. 따라서 국가나 도시의 상징성을 고려한 의식적 공간의 공공디자인과 더불어 우리의 감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생활공간에 대한 디자인의 배려, 즉 생활친화형 공공디자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섬세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선언이나 구호에 그치는 디자인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공공디자인을 통해 우리 삶이 더욱 윤택해지길 기대해본다. G

이 주의 공감 Weekly_2009.11.04_No.35(통권 136호)

12

기획특집

공공디자인으로 명품 대한민국 만든다

예술이 곁들여진 버스정류장, 상점 간판, 공공 시설물들….
학교 담엔 예쁜 그림이, 마을회관엔 작은 미술관이 들어서고….
삶의 질과 도시의 가치를 높여주는 공공디자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36

48

56

발행일 2009.11.04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Weekly 공감〉 34호(10월 28일자)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금빛 은퇴' 기사를 읽고 많은 독자들이 공감과 격려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천안에는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의 이름을 딴 '봉주로'라는 도로가 있다. 이봉주는 마라톤 한국의 자존심을 세계만방에 떨친 우리의 자부심이기 때문이다. 이봉주가 고향인 충남 대표로 출전해 20년 마라톤 선수생활을 '금빛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그의 굵직한 눈물방울을 보면서 적지 않은 감동을 느꼈다. 마라톤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누구나 처음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지만 그게 잘 안 되면 외부의 탓으로 돌리며 포기하기 일쑤다. 그런 면에서 이봉주 선수의 아름다운 완주는 극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_ 홍경석

"힘든 환경에서도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룬 이봉주 선수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포기와 좌절을 모르는 그의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끈기를 꼭 본받고 싶네요. 앞으로 지도자로서도 좋은 결실 맺기를 바랍니다."_ 육수자

〈Weekly 공감〉 34호 기획특집 '푸른 농촌 희망 찾자'와 관련해 독자들이 올린 댓글입니다.

"주말농장을 10여 년째 가꾸면서 은퇴 후 축산업을 꿈꾸고 있는 직장인으로서 농업 각 분야에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는 분들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도시와 농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닌, 서로에게 속해 있는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다만 축산업 분야에 대한 경험이 나오지 않아 아쉬웠는데, 다음 기회에 꼭 소개해줬으면 좋겠다."_ 정세민

"농촌 출신으로서 공감 가는 내용이 많았다. 농업정책은 농촌에 대한 깊은 심정적 이해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다. 여러 정책도 중요하지만 농민을 위한 컨설팅, 법률적 지원 등을 통해 애로 사항을 해결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_ 하채수

〈Weekly 공감〉 34호 '선물과 유품으로 만나는 박정희 특별전' 기사를 읽고 독자 홍양희 씨가 소감을 보내왔습니다.

"요즘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다시 연구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는 기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받은 선물들을 보니 당시 위상과 외교사를 엿보는 듯합니다. 좋은 전시회에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_ 홍양희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A4 한 박스 인쇄용지는 약 4.4킬로그램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이면지를 메모지 등으로 적극 활용하면 그만큼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1회 이용은 12.7그램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킵니다. 4층 이하는 계단을 이용합니다.

알립니다

사물통신의 새 이름을 지어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 사물통신 새 명칭 공모전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사물통신 기반 구축 기본계획' 추진에 따라 차세대 방송통신 인프라 개념인 '사물통신'에 걸맞은 이름을 찾기 위해 '사물통신 새 명칭 공모전'을 실시한다. 명칭은 미래 사물통신 시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친숙하고 미래 비전과 꿈을 담아야 한다.
사람, 기기, 기계간 통신을 의미하는 사물통신은 원격지의 사물정보를 확인, 환경·기상·에너지·교통 등 미래 유비쿼터스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총칭한다. 그러나 사물통신이란 명칭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 상 최우수상(1명, 1백만원), 우수상(4명, 10만원)
접 수 11월 20일까지
접수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ict2012@nia.or.kr)
문 의 02-2131-0398, www.nia.or.kr
시 상 12월 중

바로 잡습니다

〈Weekly 공감〉 34호 표지 설명에서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로 되어 있는 사진 촬영장소를 전남 순천 송광면 산척리로 바로 잡습니다.

공감 ♥ 퍼즐

1		2	■	■	■
	■	3	4	■	■
■	5	■	6		
■		■		■	■
7		8	■	■	■
■	■	9			■

빈칸의 정답을 적어 주소, 연락처와 함께
11월 11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Weekly 공감〉 33호(10월 21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소풍 **3** 베트남 **5** 세계문화유산 **7** 대장경 **9** 비보이
세로 2 풍향계 **4** 남한산성 **5** 세종대왕 **6** 화합 **8** 경비

〈Weekly 공감〉 33호(10월 21일자) '공감 퍼즐' 당첨자
박경림(충북 청원군 강내면)
송은경(경기 군포시 산본동)
우창수(충남 서산시 대산읍)
이보연(서울 성북구 정릉동)
이종호(부산 북구 화명동)

가 로
1. 거리의 미관과 건강 등을 위해 길을 따라 심어놓은 나무. 이것도 디자인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미술 작품 등을 만들 때의 형상, 모양, 색채, 배치, 조명 따위에 관해 생각하고 연구하여 그것을 그림으로 설계하여 나타낸 것. 이것 역시 디자인의 일부죠.
6. 중간 정도의 소득이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계층. "서민을 따뜻하게 OOO을 두텁게."
7. 연극, 영화, 소설 등에서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인물. 어떤 일에서 중심이 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변화의 OOO은 바로 당신입니다."
9. 상대와 겨뤄서 이길 만한 힘이나 그런 능력. "공공디자인은 국가의 미래 OOO입니다."

세 로
1. 봄, 여름, OO, 겨울.
2. 한 나라의 중앙정부가 있는 도시.
4. 2009년 10월 26일은 이분이 조국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하얼빈 의거를 하신 지 1백 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국에서 OOO 의사를 기리는 각종 행사가 열렸고, 경기도 부천에는 이분의 동상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5. 의상, 공업 제품, 건축 따위의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조형 작품의 설계나 도안. 이제는 국가나 도시에서도 이 개념이 실제로 도입되어 새로운 트렌드와 경쟁력으로 떠올랐죠. "서울시, 2010년 세계 OOO수도로 선정되다."
8. 공손히 받들어 모심. "웃어른을 OO할 줄 알아야 한다."

독자 공감

독자들의 단소리, 쓴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자 합니다. 이 코너에 참여를 원하시는 독자는 주소, 연락처와 함께 간단한 자기 소개의 글을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Weekly 공감〉을 읽는 게 직장생활의 큰 기쁨이라는 방윤희(29) 씨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 회의에서 근무하고 있다. 중고교생 비무장지대(DMZ) 안보 견학, 통일글짓기대회, 평화통일포럼 등 국민에게 통일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이 그의 주된 업무다. 그는 "〈Weekly 공감〉은 지루해지기 쉬운 내 일상에 비타민 역할을 하고 있다. 나도 누군가에게 비타민이 되어주고 싶다"며 '독자 공감' 참여를 희망했다.

● 〈Weekly 공감〉은 어떻게 구독하게 됐나요.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다 잠깐 쉬고 있는데 테이블에 놓여 있던 책 한 권이 눈길을 끌더군요. '공감'이라는 제목과 표지가 마음에 들어 집어들었다가 앉은자리에서 다 읽어버렸어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가득해 '아, 이래서 공감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그게 인연이 되어 지금은 사무실 직원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감 구독을 적극 권하고 있답니다.

● 〈Weekly 공감〉의 좋은 점과 보완할 점이 있다면.

첫 장을 열면 앞부분에 독자 참여 코너가 자리하고 있는 게 좋아요. 독자들에 대한 배려와 함께 독자와 함께 만들어간다는 친근감을 느낄 수 있어 애정이 갑니다. 그런데 제 주위를 보면 〈Weekly 공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선 학교나 단체 등에서 공감을 접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배포했으면 좋겠어요.

● 통일 관련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국민들의 통일관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요.

통일은 온 국민이 소원하고 염원하는 것이지만 막상 통일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띠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통일의 필요성과 안보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도록 〈Weekly 공감〉에서 관심을 갖고 관련 기사를 많이 내보냈으면 합니다.

공감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이유
2. 기획특집에서 다룬 '푸른 농촌 희망 찾자'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김용기 서울시 강동구

1. 농구 코트에도 다문화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 이채롭다. 이들이 또 하나의 신선한 문화 콘텐츠가 돼 한국 농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촉매제 구실을 했으면 한다.
2. 올해는 풍년이라 농민들이 기뻐해야 함에도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앞으로는 쌀 한 톨 한 톨이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피와 땀이라 여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해야겠고, 농업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야겠다.
3. 점점 잊혀가는 소중한 문화재에 대해 다뤄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이기에 추천할 만한 자전거 코스도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다.

최현미 전북 정읍시

1. '봉달이' 이봉주 선수의 기사에 가슴이 뭉클했다. 마라톤 선수로서는 맞지 않는 신체적 조건을 극복해온 의지력, 인내력, 투혼 등은 귀감으로 삼아야 할 덕목이라 생각한다. 우리 국민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이봉주 선수에게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낸다.
2. 쌀이 남아돈다는 것은 행복한 고민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지구촌에는 식량이 부족해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식량부족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런 실태를 거울삼아 남는 쌀을 잘 활용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3. 인구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는 심각한 문제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자동소멸국가가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인구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기백 경북 포항시

1.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플루 관련 기사가 유익했다. 예방접종Q&A는 많은 사람과 함께 읽어보고 싶을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했다.
2. 쌀값 폭락 등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데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쌀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은 반가웠다. 정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만들어나가기를 바란다.
3. 교통체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사를 한 번도 접하지 못한 것 같다. 특집으로 꾸며도 좋을 것 같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1월 4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공감마당에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는?
2. 이번 주 기획특집 '디자인이 대한민국을 바꾼다'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당신의 웃음이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실수요자에게만 공급됩니다

보금자리주택은 7~10년 전매제한되며,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일부 떴다방 등의 유혹에 속아 청약통장 불법거래 시
청약기회를 상실하거나 형사처벌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보상금을 노린 불법행위는 보금자리주택 분양시기 지연 및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보금자리주택 – new

"보금자리주택 부정거래가 당신의 환한 웃음을 앗아갑니다"

보금자리주택 투기는 사회의 공적입니다

경쟁력 있는 채널 늘어난다

헌재, 미디어법 유효 결정… 방통위 후속조치 가속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미디어시장 재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등 후속조치가 빨라지고, 연말과 내년 초를 기점으로 미디어산업 빅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동아DB

헌법재판소는 10월 29일 열린 권한쟁의심판에서 미디어법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조만간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로 방송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게 됐다. 방송 채널이 늘어나면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볼거리가 많아지고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혜택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10월 29일 신문·방송 겸용을 허용하는 미디어법의 효력을 인정한 덕분이다. 이날 열린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원 93명의 미디어법 가결 선포 무효 청구에 따른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의 유무나 권한의 범위 일탈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다툼을 해결하는 제도다.

이날 헌법재판소 판결로 탄력을 받은 방송법과 IPTV법은 11월 1일부터, 신문법은 내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방송 진출을 검토하는 언론사들의 종합편성채널 사업 쟁취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사들은 '미디어 빅뱅' 시대를 맞아 미디어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 방송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찌감치 방송 진출을 선언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가 종합편성채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작업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연합뉴스, CBS 등도 보도전문채널 경합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방송사업 가능성을 저울질해왔던 신문사나 대기업들도 참여 결정을 서두르고 있다. '미디어시장 새판 짜기'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개정 방송법 시행령 11월 중순쯤 발효될 듯

가장 바빠지는 곳은 방송정책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다. 미디어 관련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미뤄온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와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에 대한 선정 계획 마련 등 미디어시장 재편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확정되면 법제처 심사를 거친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논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

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다.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2주다. 따라서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이르면 11월 중순쯤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방송광고시장도 급변할 전망이다.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앞으로는 간접광고나 가상광고도 허용된다. 지상파와 케이블TV 방송의 겸업도 허용됐기 때문에 지역민방과 지역케이블방송사 간의 인수합병(M&A) 가능성도 높아졌다. 외국자본도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있어 글로벌 컨소시엄을 구성해 방송사를 인수할 수도 있게 됐다.

"서둘지도, 지체하지도 말고 합리적으로 준비해야"

종합편성 및 신규 보도전문채널은 내년 1분기(2, 3월)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종편 및 보도채널의 사업자 수는 각각 1, 2개를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미디어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종편채널은 2개, 보도채널은 1개가 선정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29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 종편사업자 선정 등 미디어법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상임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은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다. 서둘지도 말고, 지체하지도 말고, 적법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사업자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태스크포스에서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구체적인 숫자와 선정 기준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 기준으로는 △자본력(2천억원 이상의 자본금) △컨소시엄의 다양성(다양한 계층) △글로벌 미디어에 맞는 사업계획 △미디어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아이디어 △콘텐츠 개발 능력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사업자는 내년 1월 사업계획 비교심사(RFP) 과정을 거쳐 늦어도 3월 이전에 선정될 전망이다. G

글 · 김지영 기자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방송 전문성 커지고 좋은 콘텐츠 많아질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중 개정 방송법에 맞춘 시행령 개정 작업부터 서두를 계획이다.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와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작업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중 시행령이 개정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와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내년 3, 4월에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미디어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개정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의 시행일이 11월 1일인 점을 감안해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미디어 관련법의 법적 효력이 명확해졌으므로, 미디어산업 발전과 공익성 제고라는 법 개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정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미디어법과 관련해 어떤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정 방송법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과, 둘째 개정 방송법에서 규정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 그리고 신규 종합편성채널 도입 및 보도전문채널 추가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디어법이 앞으로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십니까.

개정 방송법이 시행되면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이 확대되어 방송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자본력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새로운 채널이 생겨나면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늘어나 삶이 풍요로워지고 보도 창구가 늘어나 여론의 다양성도 확대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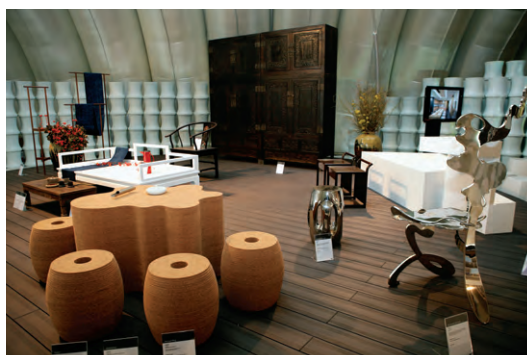
연합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이 열린 10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청객들이 재판관들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동아DB

일본에는 최근 신문, 방송, 통신을 융합한 크로스 미디어 전략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미디어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NHK국제방송국 내부.

2009년 12월, 봄처럼 활~짝
대한민국 미소금융이 피어납니다!
Smile again
스마일 어게인
희망을 빌려주는 아름다운 소액대출 미소금융 프로젝트
신용도가 낮아도 자활의지가 있으면 희망을 빌려주는 서민금융이 올 12월, 미소금융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전통시장 상인대출
▶일반 창업자금
▶공동대출
▶사회적 기업 지원자금
종합안내센터
1600-5500
▷미소금융이란? 서민층의 재활을 돕는 무담보 소액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의 일환으로써 향후 10년간 2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전국 200~300개의 지역법인을 설립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새로운 서민금융 프로젝트입니다
서민이 활짝 웃는 그날까지 -
미소금융중앙재단

기 · 획 · 특 · 집

Design KOREA

공공 디자인 명품 대한민국

느끼고 계신가요? 삭막하고 칙칙하던
우리의 생활 주변이 나날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버스 정류장, 상점 간판, 공공 시설물들에 예술이 곁들여지고
서로 조화를 이뤄 아침 출근길이 한결 즐거워졌어요.
학교 담벼락엔 예쁜 그림이 그려지고 마을회관에 작은 미술관이
들어서는 등 문화마을이 된 우리 동네에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게 다 공공디자인의 힘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도시의 가치를 높여주는
공공디자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디자인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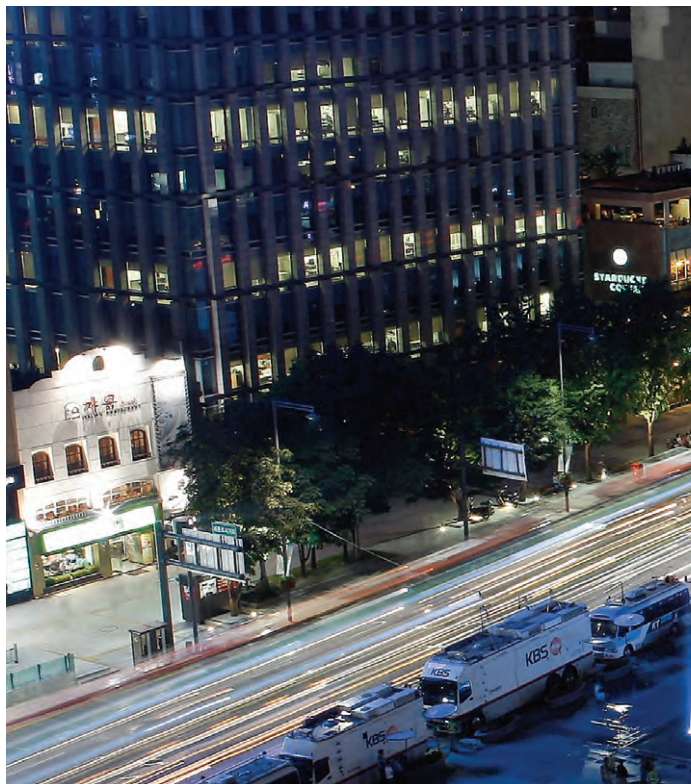
대한민국을 녹색으로 디자인하라

동아DB

공공디자인 활성화에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나서고 있다. 디자인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다. 공공디자인은 단순히 도시 외관을 바꾸고 가치를 높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람들의 심성과 관계, 삶의 질까지 바꾼다.

공공디자인이 대한민국의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까지 공공디자인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간마케팅에 눈을 뜬 것이다.

지난 9월 경기도와 부산은 각각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페스티벌'과 '부산 사인 엑스포'를 열었다. 10월엔 인천과 서울에서 '인천 도시디자인대전'과 '서울 디자인올림픽'이 열렸다. 서울시는 2012년 세계 디자인수도 프로젝트와 연결된 도시 갤러리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대구시도 도시디자인총괄본부를 출범하고 '도심재생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디자인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들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심포지엄 등을 앞다퉈 여는가 하면 지역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으로 관장할 부서나 위원회를 잇따라 설치하고 있다.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시는 공공디자인을 통한 명품도시 개발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런 지자체들의 움직임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대표 주자격인 디자인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정부도 지원 법안을 마련해 지자체들의 노력에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디자인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고, 국토해양부는 도시정비위원에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포함시켜 도시 공간 통합디자인을 강화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자인공간문화과를 중심으로 간판문화 개선사업,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공디자인 엑스포를 진행하는 등 공공디자인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동아DB

지방자치단체들도 공공디자인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가 공모한 벤치 디자인 당선작들(왼쪽)과 아름다운 공공예술공간으로 떠오른 부산 삼락동 거리.

건축물·공원·유니폼·거리 쓰레기통도 모두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아름답고 편리하며 합리적으로 디자인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을 비롯해 공원, 광장, 버스 승강장, 쓰레기통, 보도, 가로등, 벤치, 광고물, 교통 사인, 여권, 각종 제복과 유니폼, 분수, 자전거 거치대, 거리 쓰레기통, 게시판 등이 모두 공공디자인의 범주가 된다.

과거 도시들은 물질적 산업생산을 토대로 한 양적 성장에 주력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압축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이 떨어진 게 사실이다. 고층 건물은 주위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어졌고, 간판은 크고 요란하기만 했다. 시설물을 만들 때 시민 편의는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공공디자인은 도시의 수준을 높여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여준다. 여기에 경제적 효과가 덤으로 더해진다. 새롭게 조성된 서울 광화문광장.

하지만 지금은 인간을 위한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를 표현하고 생산하며, 창조적인 도시 문화환경 조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20세기 후반부터 선진국들이 주목한 공공디자인의 가치에 우리도 본격적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공공디자인의 효과는 이미 세계적인 관광도시들에서 입증됐다. 미국 뉴욕 첼시, 프랑스 파리, 영국 게이츠헤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일본 요코하마 등은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함으로써 세계인들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도시가 됐다.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강원 영월군은 석탄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쇠락한 도시가 됐다. 하지만 거리를 정비하고 특색 있는 간판을 다는 등 거리를 새롭게 꾸미자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관광객이 20퍼센트나 늘어난 것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도 달라졌다. 이처럼 공공디자인은 사람이 살 만한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삶의 질을 바꾸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공공디자인의 효과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통해 설명된다. 동네에 깨진 유리창을 한두 장 방치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되는가보다'라는 생각으로 더욱 방관하게 돼 깨진 유리창이 늘어나고 결국 동네 전체가 슬럼가로 전락한다. 하지만 반대로 깨진 유리창을 모두 치우고 깨끗하게 만들면 사람들의 마음 자세도 달라져 범죄가 줄어든다. 범죄도시로 유명했던 뉴욕이 단적인 사례다. 뉴욕시는 거리환경을 바꾸면서 범죄율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오히려 관광객이 몰려드는 문화도시가 되었다. 이처럼 공공디자인은 단순히 외관의 변화를 넘어 사람들의 심성을 바꾸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맺음의 양식까지 바꿔놓는다.

우리나라에서 공공디자인의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시 이룬 청계천 복원과 서울광장이라 할 수 있다. 청계천 복원과 서울광장 조성이 가져온 경제적 효과는 차치하고 달라진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은 돈으로는 환산할 수조차 없다.

'4대강 살리기'는 대표적 공공디자인 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가적인 공공디자인사업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보를 지역 특색을 살리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4대강변을 열린 공간문화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2년간 1백74억원을 투입해 경기 양평(한강)과 전북 익산(금강), 경북 안동과 부산 부산진구(낙동강)에서 4대강 주변도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양평은 예술공원과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는 '한강 아트로드', 익산은 나루터를 복원하고 탐방로를 마련하는 '금강변 포구마을 꾸미기', 안동은 벚꽃길을 만드는 '낙동강 벚꽃길 가꾸기', 부산진구 서면에서는 의료 특화 거리를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한류관광 중심 서면 만들기' 사업이 각각 진행된다. 시범사업의 성과를 봐가며 대상 지역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강화정책에 대해 신홍경 경원대 교수는 "공공디자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긴 호흡과 짧은 호흡이 동시에 필요하다. 또한 세계화된 시선과 지역적 정서가 동시에 교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공공디자인에 환경과 녹색성장이 결합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G

글 · 최호열 기자

정부의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전국 각지의 버려지거나 불편했던 공간이 쾌적하고 유용한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사진은 폐채석장에서 문화예술공간으로 변신한 포천아트밸리.

산책하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나라로

영국의 정치가 처칠은 "인간은 건축을 디자인하고 건축은 인간을 디자인한다"는 말로 공간환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아름다운 공간은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든다. 정부는 다양한 공공디자인 정책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의 생활공간을 한층 유용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형태, 색채, 구조 등 생활공간이 사람의 감정과 생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며 명백합니다. 따라서 공간환경 정책은 공간구조가 인간의 삶과 질, 인간 간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공공디자인을 개선하는 것은 단지 생활환경의 외관을 정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인격과 심성을 바꾸고 사회 분위기까지 환기시킵니다. 한때는 끔찍한 범죄도시였던 미국 뉴욕이 범죄 단속 대신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1990년대에 범죄율을 절반으로 떨어뜨린 일은 좋은 사례지요."

문화체육관광부 디자인공간문화과 한민호 과장의 설명이다. 디자인공간문화과는 일상의 생활공간 자체를 문화공간으로 바꿔 국민으로 하여금 삶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느낄 수 있게 한다는 문화정책 패러다임에 맞춰 도시디자인, 특히 공공디자인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철칙이 있다. 먼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공공디자인은 주민 스스로 집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예쁘게 가꾸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건축물이 지닌 전통적 가치와 원형을 살린다는 원칙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건축물을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치는 일은 없다. 특히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일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다. 자재를 신중히 사용하고, 건축을 고민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야만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디자인 정책으로 구도심 활성화, 예술창작벨트 조성, 옛 서울역사의 복합문화공간화,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경기침체 여파로 각박하고 메마른 전국 곳곳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동아DB

대구광역시 동성로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통해 '걷고 싶은 거리'로 변모했다.

구도심 슬럼화 막고 고유한 문화 되살리는 공공디자인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에 사는 주부 김혜영 씨는 요즘 저녁마다 동성로에서 산책을 즐긴다. 집 근처의 동성로에 쉴 곳과 볼거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김 씨는 "산책 겸 쇼핑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1년 전만 해도 거리를 가득 메운 노점상과 전기시설이 많아 제대로 걷기조차 어려웠는데 그사이 환경이 쾌적해지고 분위기도 좋아져 지금은 매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구도심 슬럼화를 막고 도시의 역사성과 고유한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동성로가 '걷고 싶은 거리'로 변모했다. 대구시와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추진해온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의 1차 구간은 지난 7월 완공됐다.

대우빌딩~대구백화점~동성5길을 잇는 7백60미터 구간에 상설 야외무대와 광장, 바닥분수 등이 조성됐다. 보도블록도 모두 교체됐다. 보행자 전용도로에는 목백합과 대왕참나무 등 41그루가, 노점상이 있던 곳에는 가로등과 벤치가 들어섰다. 옛 읍성이 있던 자리에는 울퉁불퉁한 장대석을 1.5미터 폭으로 이어놓았다.

2차 구간(동성5길~중앙치안센터~통신골목 간 5백40미터) 사업은 내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 구간에는 바닥분수와 벤치 등이 들어선다. 총 43억원을 들여 2008년 8월 착공한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심재생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도 간판 정비 및 가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문화가 있는 아름다운 거리'로 되살아났다. 2005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이 사업으로 광복로의 일부 도로가 화강석으로 바뀌고, 여유 있는 보행로도 확보됐다.

또 거리 곳곳에 공연장이 만들어져 시민 누구나 문화공연을 열거나 즐길 수 있게 됐다. 간판도 색상을 구역별로 통일하고 아기자기한 글자체와 그림을 이용해 아름답게 꾸몄다. 덕분에 주말이면 이 일대가 '차 없는 거리'로 변해 사람들이 넘쳐날 뿐 아니라 대학 동아리와 지역 예술가들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강원 영월군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간판문화 개선사업을 실시해 상권 및 관광 활성화를 이뤘다. 안양시 만안구도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이 한창이다. 안양시는 지역 특성을 살린 시범디자인 거리를 조성해 시민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채석장·철로… 근대 산업유산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

경기 포천시에서는 30년 동안 화강암을 캔 뒤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버려진 채석장이 '포천아트밸리'라는 친환경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포천시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2004년부터 폐석산의 원형을 최대한 살려 새로운 문화관광시설을 조성했다. 화강암을 이용한 조각공원과 돌문화 전시장, 공연장을 만들고 아트밸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와 쉼터도 마련했다.

관람객을 위해 아트밸리 입구와 천주산 정상을 오가는 4백20미터 길이의 모노레일도 설치했다. 또한 높이 40~50미터의 깎아지른 듯한 화강암 절벽과 병풍처럼 둘러싼 절벽 사이로 지하수와 빗물이 흘러들면서 만들어진 7천여 제곱미터 크기의 자연호수인 '천주호'는 비경을 이룬다.

10월 24일 포천아트밸리 개장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이곳을 찾은 주부 박정남 씨는 "아이들과 모노레일도 타고 조각공원과 호수도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웅장하게 둘러싸인 절벽과 묘한 대조를 이루는 호수는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포천아트밸리는 2011년까지 문화예술 창작벨트로 조성된

포천아트밸리에는 화강암을 이용한 조각공원이 조성됐다.

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년 전 이곳을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3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연면적 1천2백 제곱미터 규모의 교육전시센터와 문화예술 카페가 들어서게 된다. 포천아트밸리는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됐던 경기 북부지역의 국제적 문화예술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밖에도 전북 군산시 내항, 전남 신안군 염전, 대구광역시 KT&G 연초제조창, 충남 아산시 폐철도 등 근대 산업유산을 지역문화와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을 지자체와 함께 벌이고 있다.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학교 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창의성과 학습효과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기업의 동참을 유도해 일상생활 공간의 문화적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군산시는 군산 내항 일원의 나가사키18은행과 조선은행 등에 전시장과 공연시설, 체험 및 창작공간을 조성해 기업메세나(1사 1문화공간 사업) 운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1953년에 조성된 전국 최초의 천일염전인 '태양염전'과 소금창고에 소금 테마 체험장, 염생식물관찰원, 전시·공연 공간을 만들어 염전 체험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1999년 폐쇄된 KT&G 연초제조창 창고에 창작카페, 아트숍, 예술자료관, 공연장, 강당, 창작실 등을 꾸며 기획전시, 다목적 공연, 예술교육을 벌이고 시민예술가를 키우는 '문화창조발전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아산시는 구 장항선 간이역인 도고온천역과 온양온천역 사이의 폐철도와 역사에 미술전시 공간과 공연장, 공연연습실, 무대미술제작소를 마련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공연아카데미를 운영할 방침이다.

50퍼센트의 국고 보조로 올해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은 근대 산업유산의 리모델링과 경관 정비 등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옛 서울역사 원형 복원…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

사적 286호인 옛 서울역사의 외관과 내부 모두를 1925년 처음 세워질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공사가 지난 8월 초부터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약 2백억원을 투입해 옛 서울역사의 복원 및 복합문화공간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행 본관건물(사적 280호)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건축미가 가장 뛰어난 건물로 알려진 서울역사는 1922년 6월 착공돼 1925년 9월 준공됐다. 지상 2층, 지하 1층에 총면적은 8천2백16제곱미터에 이른다. 중앙 건물 지붕에 얹은 타원형 돔과 창문, 마감재 종류와 색상을 이원화한 외벽이 르네상스 양식의 우아하고 멋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이번 공사를 통해 현재 일부 변형된 부분은 원래대로 되살아나고, 약화된 부분은 탄탄해진다. 서울역사 남쪽 지반에 대한 골조보강 공사도 진행된다. 중앙 건물 지붕은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도록 현재의 콘크리트에서 동판(銅板)으로 재질이 바뀐다. 공사가 완료되는 2011년 3월 옛 서울역사는 쇼핑, 관광, 전시, 공연 등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 5백95제곱미터 규모의 1층 중앙홀은 공연, 전시, 콘서트 등을 위한 다목적홀로 연출된다. 대합실과 부역장실, 부속실 등 5백19제곱미터 공간에는 근대문화역사관을 조성해 서울역의 근현대사를 보여주는 상설전시관으로 활용한다. 이 밖의 공간은 소규모 전시공연장, 세미나실, 야외 카페 등으로 꾸며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역사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해 사진전시 공간으로 꾸몄다. 1백71미터 길이의 이 가림막에는 1900년 이후 지금까지 서울역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사진 자료 70여 장이 전시돼 있다.

1900년 남대문 정거장의 모습부터 1925년 서울역사 신축 장면, 1928년 경성 공연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역에 도착한 무용수 최승희와 그 일행, 8·15광복 직후 서울역 앞에서 환호하는 시민들, 1950년대 상경한 승객에게 방역용 살충제인 DDT를 뿌리는 모습, 1980년 5월 서울역 광장에서 벌어진 민주화 시위 장면 등 하나같이 가로세로 길이가 1미터 내외인 대형 사진들이다. 증기기관차에서 디젤기관차를 거쳐 오늘날 KTX에 이르기까지 철도의 발전사도 한눈에 볼 수 있다.

가림막을 활용한 사진전을 관람한 오명철(76) 씨는 "전시된 사진들을 보면서 옛 추억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가림막 곳곳에는 투명한 아크릴판을 설치해 시민들이 공사 진행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디자인공간문화과 이용욱 주무관은 "향후 공사 기간에도 문화재 전문가

경기 고양시 호곡중학교에 개관한 '공감터'에서 학생들이 그림을 감상하며 토론을 즐기고 있다.

옛 서울역사 복원공사 현장을 둘러싼 가림막이 야외 사진전시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가 안내하는 공사 현장 공개관람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여건에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옛 서울역사 근처의 노숙인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학교에 가고 싶어요"

지난 9월 30일 고양시 탄현동 호곡중학교에 학생들의 문화공간인 '공감터'가 개관했다. 호곡중학교는 올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대상 학교로 선정돼 공감터를 마련하게 됐다. 이전에는 그저 썰렁한 학교 건물의 사각지대에 지나지 않던 공감터는 정부의 지원과 학교의 개선 노력에 힘입어 학생들의 쉼터로 다시 태어났다.

2학년 이지연 양은 "예전에는 아이들이 잘 찾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최복점 교장은 "정부의 도움으로 프랑스에서 공부한 건축 디자이너가 설계했는데, 자연을 벗삼아 휴식하기 좋은 구조여서 학생들의 정서적 공감과 소통을 도모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지금은 이곳에서 학생들의 그림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 인근 주민들까지 구경하러 온다"고 전했다.

지난해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전북 전주시 양지중학교는 진입로와 외곽을 야외 갤러리처럼 꾸미고, 로비와 복도와 여유교실을 문화카페로 만들었다. 또 화장실도 음악이 흐르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이후 양지중학교는 학교폭력이 절반으로 줄었을 뿐 아니라 학교 분위기가 차분해지고, 학생들도 밝고 침착해지는 등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이처럼 학교 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창의성과 학습효과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사용 주체인 학생과 교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기업의 동참을 유도해 일상생활 공간의 문화적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부터 시도교육청을 통해 대상 학교를 선정해 빈 교실, 화장실 등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컨설팅 및 시공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주 양지중학교를 비롯해 서울 대왕중학교, 경기 화성 장명초등학교, 경북 영주 남산초등학교, 경남 밀양 무안중학교 등 5개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고양 호곡중학교와 서울 용곡중학교, 부산 구화학교, 대구 명덕초등학교, 안양 신성중학교, 이천 한국도예고등학교, 충북 제천 동중학교, 전북 전주 중앙초등학교, 경북 김천 다수초등학교, 경남 거창 샛별중학교 등 10개교가 대상 학교로 뽑혔다. 각 학교는 5천만원의 시공비와 컨설팅을 지원받는 혜택을 누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학교 규모에 맞춰 시공비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11월 5일부터 2009 공공디자인엑스포 열려

‘녹색 디자인’이 신성장동력

2009 공공디자인엑스포가 ‘공공디자인으로 실천하는 녹색성장’을 주제로 11월 5일부터 9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다. 인간 중심의 친환경 도시공간을 보여주는 이번 엑스포는 일상과 공공디자인의 만남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환경을 재조명하고 공공디자인의 비전을 제시할 ‘2009 공공디자인엑스포’가 11월 5일부터 9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다. 공공디자인엑스포는 올해로 3회를 맞는 국내 유일의 공공디자인 전문 전시회로 공공기관, 공공디자인 관련 기업 등 80여 기관과 기업이 참가한다.

이번 엑스포의 주제는 ‘공공디자인으로 실천하는 녹색성장’이다. 흔히 디자인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제는 환경까지 생각하는 디자인이 대세다. 물건을 만들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사용과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디자인이 중요해진 것이다.

공공디자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쇠락한 지역을 살리는 경제적 효과도 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친환경 공공디자인이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디자인공간문화과 강동진 사무관은 “친환경 공공디자인은 국가의 부가가치와 삶의 질을 높이고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실천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디자인으로 실천하는 녹색성장’이라는 주제에 맞게 이번 엑스포는 도시 재생, 인간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 친환경을 통한 새로운 도시 공간문화를 보여준다. 전시장도 친환경 콘셉트로 꾸며져 산책하듯이 잔디밭과 나무를 따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공디자인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도시 재생, 친환경 통한 새 도시 공간문화 보여줘

특히 ‘문전성시-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근대 산업유산 복합문화공간 만들기’ 등은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일상과 공공디자인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문전성시-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는 침체된 전통시장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어 시장을 지역문화 공간이자 관광

안양공공예술재단

안양시가 출품한 6미터 높이의 움직이는 풍선 모양 예술공간 ‘방방’. 이번 엑스포 기간에 개최되는 공공디자인 테크니컬 워크숍과 프로세스 워크숍이 ‘방방’에서 열린다.

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엑스포에는 수원 못골시장, 강릉 주문진시장, 서울 수유골목시장이 참여해 생활친화형 공공디자인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는 획일적인 학교 공간을 리모델링해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로 바꾸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간개선 사업이다. 이번 엑스포에서 달라진 학교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출하는 매개체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근대 산업유산 복합문화공간 만들기'는 공공디자인을 활용하여 옛 서울역사, 군산 옛 조선은행, 대구 연초제조창, 아산 폐철도 등 근대 산업유산이 전시관, 공연장 등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바뀌는 구도심 재생 사례를 보여준다.

입장료 수익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전액 기부

이 밖에도 눈에 띄는 전시가 많다. 코오롱건설의 덕평자연휴게소는 '밥 먹고 볼일 보는 곳'이라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꾼다. 연중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 태양광 발전 시스템, 분리막 이용 하수고도처리기술(KIMAS) 공법이 적용된 오수처리 시설 등 친환경 최첨단 기술이 아름다운 산책로와 조경 속에 모여 있다.

6미터 높이의 움직이는 풍선 모양의 예술공간 '방방(Bang Bang · 움직이는 방)'도 볼거리다. '방방'은 안양시 공공예술 프로젝트 2010의 사업으로 독일의 건축·예술그룹 라움라보어와 김광수 이화여대 건축과 교수가 협업을 통해 수행하는 예술 프로젝트로, 엑스포 기간에 개최되는 공공디자인 테크니컬 워크숍과 공공디자인 프로세스 워크숍도 '방방'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엑스포는 친환경 전시장으로 조성돼 '쓰레기 제로'에 도전한다. 전시회 후 배출되는 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로 부스와 전시물을 설치한다. 또한 전시 작품은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한다.

2009 공공디자인엑스포에서는 나눔 캠페인도 벌인다. 입장료 수익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전액 기부해 문화적 학교 공간 조성, 문화로 학교 화장실 가꾸기, 학교 문화카페 조성 등에 쓰일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엑스포가 공공디자인을 체험하며 느끼는 만남의 장이 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디자인공간문화과 강동진 사무관은 "공공디자인엑스포는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2009 공공디자인엑스포 www.publicexpo.co.kr

김영섭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장소의 회복으로 생태의 회복 꾀한다"

조영철 기자

2009 공공디자인엑스포 기간에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포지엄도 열린다. '공공디자인을 통해 실천하는 녹색성장' 심포지엄에서 기조발제를 하는 김영섭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에게서 공공디자인에서 녹색성장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들었다.

공공디자인이 생태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공공디자인에서 자주 거론되는 장소의 회복은 바꿔 말하면 지역 특성의 회복과 다양한 종(種)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녹색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과 생태가 균형을 이루고 상호 의존하며 살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에서 녹색성장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공디자인에서 녹색성장은 자연, 타인,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공공디자인은 나를 내가 사는 곳, 다른 이와 공유하는 자연환경과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녹색성장을 도입함으로써 한 문명이 다른 문명에 가했던 불평등과 핍박에 종말을 고하고, 나아가 인류 전체가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는 성찰적 진화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공공디자인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까요

도시계획을 포함해서 건축과 디자인의 한계를 깨닫고 디자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녹색성장을 위한 공공디자인에서 맨 앞에 내세워야 할 금과옥조입니다.

또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오래된 집단기억의 배경으로 자리 잡은 좋은 공공디자인을 조금씩 개선하면서 그 지역에 맞는 통합된 풍경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환경과 공간환경을 가꾸어나가는 일은 무엇보다 그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중요합니다.

서울시가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북촌정비사업은 더디기는 하지만 '북촌포럼'이나 '한옥지킴이' 등과 같은 시민모임과 연대해 북촌이라는 역사적인 주거 장소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조금씩 개선해나가고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4대강을 비롯한 수변공간이 제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보존해야 하는 강변 풍경들을 시민에게 보여주고 우리나라의 강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전 국민이 알도록 해야 합니다. 즉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지난 50년간 저돌적인 근대화, 산업화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자연환경을 정화하고 생태환경을 치유해서 회복하는 성찰적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 현장을 가다

서울, iDESIGN "많이 예뻐졌죠"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갔던 것들도 디자인을 만나면 새롭게 변한다. 차도 한복판에 놓인 광화문광장, 버스 정류장 등 거리 하나하나에도 디자인은 살아 숨 쉬고 있다. 2010년 세계 디자인수도로 선정된 서울을 기념하는 '서울 디자인올림픽 2009' 현장에서 생활 속 디자인의 힘을 엿보았다.

서울디자인올림픽이 열리는 서울 잠실주경기장 앞. 파란 하늘 아래로 서울시의 상징 조형물인 해치가 햇살에 반짝거렸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멀리서도 반짝이는 해치의 비밀이 드러났다. 길거리에 버려진 페트병 3천 개를 모아 'Recycling Haechi' 라는 작품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해치를 본 사람들은 "재활용 페트병을 모아 디자인하니 멋진 작품이 됐다"며 입을 모았다.

환경을 생각하고 경관을 고려한 이런 디자인들은 서울디자인올림픽이 열리는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호돌이 계단을 넘어 잠실주경기장 입구로 들어서자 수많은 전시가 한눈에 보였다. 그중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은 것은 하늘에 펄럭이는 1천4백여 개의 하얀 비닐들이었다. '디자인 하늘(i-sky)'이라 불리는 이 조형물은 철제에 매달아놓은 비닐들이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서울을 감싸고 있는 부드러운 산세와 지형을 상징한다고 한다.

주경기장 한가운데에서 펄럭이는 '디자인 하늘'을 바라보다 자연스레 관중석에 꾸며진 친환경 전시장으로 눈이 쏠렸다. 서울시 25개의 자치구가 '녹색과 환경'을 주제로 각 구에 맞는 콘셉트에 따라 전시한 것이다. 용산구는 폐전자부품을 활용해 만든 로봇으로, 성동구는 세계 유명 친환경 그래픽 디자이너의 작품을 인쇄한 티셔츠 등을 꾸며 볼거리를 풍성하게 했다.

서울 잠실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는 전시회,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사람들이 디자인을 좀 더 친숙하게 여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각 구의 전시를 훑어보면서 눈에 띈 것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았다는 점이다. 처음으로 한국여행을 왔다는 중국인 류신(23) 씨는 "디자인올림픽에 와 보니 한국이 디자인 강국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류신 씨는 "특히 즐겁게 본 전시들은 저 아래 있다"며 초록 운동장 위에 서 있는 두 개의 에어돔을 가리켰다.

월드디자인마켓 · 서울미래비전 등 인기

에어돔에서 진행되는 전시는 디자인장터전, 2009 월드디자인마켓 서울, 인덱스 어워드 2009 특별전 등이었다. 현장 안내를 돕는 권성혜(25) 씨는 "재기 넘치는 디자이너 작품을 직접 살 수 있는 '2009 월드디자인마켓 서울'과 서울의 미래를 직접 체험하고 엿볼 수 있는 '서울미래비전'이 가장 인기가 좋다"고 말했다.

월드디자인마켓 서울은 전문 디자이너와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마트' 형식의 전시다. 링거처럼 만들어진 램프, 비닐이나 종이로 만든 코사지 등 아이디어 물품을 직접 만든 디자이너들과 이야기하며 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전시가 마련된 에어돔 안을 바쁘게 오가며 생활 속 디자인에 대한 지적 호기심에 흠뻑 빠져들었다. 그러나 '서울미래비전'에서만큼은 잠시 발길을 멈추고 길게 줄지어 서 있었다. 그 이유는 '자전거 타고 서울 보기' 코너를 체험하기 위해서였다. 자전거가 장착된 의자에 앉아 3D 영상을 보면 실제 자전거를 타고 가까운 미래의 서울을 한 바퀴 도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자전거 체험을 한 대학생 유미진(23) 씨는 "서울이 정말 영상처럼 바뀐다면 얼마나 멋있고 좋을지 상상이 안 간다"며 "앞으로 더 발전할 '디자인 서울'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난 10월 9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서울디자인올

서울디자인 전시회에서는 신진 디자이너들이 '오래된 것들과 디자인의 만남'이란 주제 아래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했다.

림픽 2009'는 국제디자인연맹(IDA)이 서울을 2010년 세계 디자인수도(WDC)로 선정한 것을 기념하며 일상 속 디자인의 중요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번 올림픽은 지난해와 다르게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을 기점으로 한강 공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동시에 열렸으며 전시회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공모전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마련됐다.

세계 디자인수도 선정 기념 올해 두 번째 행사 성황

서울디자인올림픽 곳곳에는 앞으로 디자인의 핵심 인물이 될 초중고교생 아이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장래에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야무진 포부를 밝힌 이선영(11) 양은 "디자인은 삶을 좀 더 편하게 바꿔주는 삶의 지혜 같다"며 "남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운 물통, '큐드럼'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는 조효진(17) 양은 "잠실종합운동장 역 간판을 의자로 만든 아이디어처럼 디자인은 생활에서 조금만 변형시키면 새로운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2백50만 명의 내·외국인이 찾은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 이번 행사를 통해 'i Design, 우리 모두가 디자이너다'란 슬로건처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톡톡 튀는 개성 만점 디자인
서울 디자인 스팟에서 만나요

서울 디자인 스팟 기간 동안 서울 도심 곳곳에는 일반 시민과 디자이너들이 함께할 수 있는 디자인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서울 홍대 앞,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효자동, 삼청동…. 이름만 들어도 왠지 색다른 디자인 감성이 넘실거릴 것 같은 동네들이다. 언제나 젊고 창조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이곳에서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와 연계한 '서울 디자인 스팟'이 열렸다.

주요 행사는 크게 세 가지로 '언더 홍대' 'Hello! 가로수길' 그리고 서울디자인올림픽 장외 행사인 '디자인 스트리트 Week&T'다. '언더 홍대'는 홍대 앞 카페, 클럽 등 디자인 스팟 50군데를 지정해 디자인올림픽이 열리는 동안 디자이너들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젊은 디자이너의 작업실을 '오픈 스튜디오'로 활용해 누구나 들어와서 예술작품을 구경하거나 배울 수 있도록 했고 독립 디자이너들의 기발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디자인 장터 아웃렛'도 열었다.

신사동 가로수길 역시 홍대 앞과 비슷한 콘셉트로 디자이너와 교류할 수 있는 '오픈 스튜디오', 20명의 가로수길 전시디자이너의 전시회를 여는 등 '디자인'을 주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는 참여형 페스티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디자인 스트리트 Week&T'는 잠실종합운동장 출구와 청담동, 서래마을 등 서울 도심 곳곳에 2백1군데의 디자인 스팟을 마련해 디자인 스트리트 가이드북을 무료로 배포했다.

양민수 서울디자인올림픽추진반 담당자는 "올해 처음 진행된 서울 디자인 스팟은 서울의 대표적인 디자인 거리들을 활용해 사람들이 다양한 디자인을 접하며 디자인 감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런던 템스 강변의 와핑 수력발전소는 원형을 거의 그대로 둔 채 레스토랑, 전시장, 퍼포먼스 무대 등으로 바꾸는 '와핑 프로젝트'라는 재생 작업을 통해 전위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났다.

홍의택

세계는 지금 디자인 경영 시대

'재생'에 초점 맞춘 공공디자인… 슬럼화 막고 관광상품화 성공

공공디자인은 '개발'보다는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산업화와 근대화의 과정에서 물려받은 유산을 재활용하면서도 현지인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주며, 관광 특수까지 이끌어내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최근 선진국 도시들은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이 모델은 신축 위주의 대규모 재개발과는 달리 현지의 특성과 지역민의 정서를 존중하는 자족적, 순환식 개발이라는 점에서 '녹색 공공디자인'이라고도 불린다. 그 특성으로는 △환경보전과 자원 절약의 녹색기술 활용 △산업화의 유물, 문화유산 등 옛것의 재생 △현지 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개발 등을 꼽을 수 있다.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보여주는 해외 사례는 꽤 많다.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798번지의 '다산즈(大山子) 798 예술구'는 1950년대에 건설된 군수공장 지대에서 중국 최대의 아트 마켓으로 탈바꿈했다.

이곳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쇠퇴, 폐허로 남아 있다가 2000년경부터 가난한 작가들이 모여들면서 예술구로 바뀐 것이다. 이곳을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시의 당초 계획은 아트 마켓이 활성화되고 관광객이 늘면서 자연스레 무산됐다. 이렇게 재생과 문화의 연결고리를 찾은 중국은 전국 50여 개의 재생 단지에 예술문화 창작공간을 세웠거나 세우기로 했다.

상하이의 '모간산루' 50번지는 쓸모가 없어진 방직공장 거리가 'M5 예술촌'으로 변신한 예다. 2000년부터 재생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곳은 80여 개의 예술단체, 1백40여 개의 화랑, 18개의 디자인센터 등이 즐비해 상하이에서 지정한 11개 특색 문화거리 중 하나로 지정돼 있다.

군수공장에 예술촌 짓고 화력발전소에 갤러리

산업화 과정에서 생긴 유산을 현대 문화공간으로 바꾼 사례는 영국 런던에서도 찾을 수 있다. 런던에서 2000년에 문을 열어 현대미술의 메카로 자리 잡은 테이트 모던은 옛 화력발전소의 외형을 거의 그대로 두고 내부를 갤러리로 바꾼 예로, 건물 자체가 유명 전시물에 못지않게 관광객을 불러 모은다.

런던 템스 강변의 와핑 수력발전소(1890~1977)는 '와핑 프로젝트'를 통해 2000년에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이다. 높은 천장과 낡은 창문, 거대한 보일러, 펌프, 도르래 등 수력발전소의 외형과 내부 시설을 거의 그대로 살려 테이트 모던보다 훨씬 손을 덜 댄 재생 사례로 꼽힌다.

옛 감성과 추억에 호소하는 '레트로 스타일(Retro Style·복고 스타일)'은 도시 마케팅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공공디자인이다. 18 59년 일본 최초로 개항한 항구 도시 요코하마는 도심

을 재개발하면서 근대에 세워진 부둣가 창고 등의 역사 유물과 차이나타운의 이국적 풍광을 도시 재생의 중요 고리로 삼아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고 있다.

이는 1983년부터 2010년까지 장장 27년간 추진된 '미나토 미라이21' 프로젝트에 힘입은 것으로, 프로젝트 이름에서 보듯 항구의 기능을 잃어가는 요코하마를 21세기 미래(미라이)의 항구 도시(미나토)로 재도약시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요코하마 시민들도 부둣가 창고에 고급 레스토랑과 디자인용품점, 카페를 만들어 문화공간으로 가꾸는 데 적극 참여했다. 그 결과 매달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등 연간 8천6백억 엔의 경제 효과와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요코하마시의 평가다.

자족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통해 거듭난 도심 공간은 현대인을 불러모으는 모던한 곳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개발' 보다는 '재생' 에 초점을 둔 공공디자인이야말로 우리 삶과 도시 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디자인이다.

재생디자인으로 거듭난 도심… 도시 문화 질 높여

영화 '러브레터'의 배경인 오타루시는 홋카이도의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쇠퇴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오타루시는 1983년에 '역사적 건축물 및 경관지구 보전 조례'를 지정해 1914년 이래로 화물을 실어나르던 작은 운하를 관광 코스로 개발하고 오르골, 전통 과자, 유리 공예품 등을 파는 거리를 만들었다.

비슷한 예로 규슈 최북단의 항구도시 모지코는 르네상스풍의 목조 기차역, 복고풍의 파란 관광열차, 세관과 은행 등으로 쓰이던 근대 건축물 등을 재생해 낭만적인 도시를 개발했다. 모지코시는 이러한 사업에 힘입어 1994년 25만명 선이던 관광객 수가 10년 만인 2004년에는 열 배에 가까운 2백30만명 선으로 늘었다.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시의 랜드마크인 운하. 1910년대부터 있었던 운하를 관광 코스로 바꿨다(오른쪽). '동화 같은 옛 향수'를 관광 상품으로 만들었다. 폐 철도에 앙증맞은 관광열차를 운행하는 일본 규슈의 항구도시 모지코시.

동아DB

역사가 오랜 재래시장의 가치를 높이는 등의 생활밀착형 공공디자인 사례도 풍부하다. 런던의 버러 마켓은 장터가 생긴 역사가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철길 주변의 유휴 부지를 웰빙 · 오가닉 푸드 중심의 재래시장으로 개선해 현지인들과 여행객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런던 동부의 스피탈필즈 마켓은 최근 민자 유치를 통해 옛 건물과 새 건물이 공존하는 재개발을 했는데, 17세기 중반에 생긴 시장을 없애지 않고 영세 상인들이 그대로 장사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례다.

또 런던 북동부의 마구간 동네였던 캠든 마켓에는 말 조형물이 세워지고 카페와 먹을거리 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대중문화 공간으로 유명해졌다. 그런가 하면 방글라데시 이민자들의 집성촌인 브릭 레인은 런던시에서 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해 다문화 거리로 육성하고 있다. 최근 <BBC>는 "브릭 레인은 2012년 런던올림픽 때 다문화를 체험하려는 관광객들의 특수가 기대되는 곳"이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자족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통해 거듭난 도심 공간은 구질구질한 중고품 진열장이 아니다. 오히려 재생을 통해 다시 태어난 공간은 현대인을 불러모으는 모던한 곳이 될 수 있다.

올 봄 미국 뉴욕 첼시 거리를 가로지르는 고가도로가 흉물스러운 옛 철길에서 '하이라인'이라는 도시 공원으로 개장했는데, 그 모습은 최첨단 건축물을 뺨치는 조형미를 보여준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낡은 건축물들을 재생한 '신천지'라는 매력적인 공간이 있는데, 이를 두고 중국 언론은 차이니스 모던의 극치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평한다.

최근 우리나라 공공디자인에도 이 같은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전북 군산시는 '근대문화 중심도시'를 추진하면서 조선은행, 적산가옥, 사찰 등 1백70여 채의 근대 건축물을 보존하고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9월 개관한 인천아트플랫폼은 화물 창고를 공연장과 작가들의 작업공간으로 바꿔 인천 구도심을 재생하고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이중효과를 보고 있다. 이처럼 '개발'보다는 '재생'에 초점을 둔 공공디자인이야말로 우리 삶과 도시 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디자인이다. G

글 · 홍의택(경원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퍼블릭디자인혁신센터장)

홍의택

공공디자인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변신 중

"서로를 배려한 소통의 결과물"

공공디자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좀 더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든다. 그렇게 꾸며진 공간에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소통과 나눔,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갖춘 공공디자인으로 바뀔 미래의 대한민국을 꿈꿔보자.

공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든다. 많은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공간에는 실용성을 전제한 공공디자인이 자리 잡고 있다.

공공 영역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공공디자인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디자인의 균형 발전을 이끌게 된다. 이는 선진 사회의 필수조건 중 하나인 디자인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공공디자인이 경쟁력을 갖추면 사람들에게는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해 물질적, 정신적 안정감을 더할 수 있다. 결국 공공디자인은 서로를 배려하는 바람직한 사회를 유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은 수요자 중심의 디자인이다. 공공디자인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은 공원, 광장, 버스 정류장, 쓰레기통, 보도, 가로등, 벤치, 광고물, 교통 표지판, 여권, 경찰 제복, 행정 서식 등 그 수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래서 시각, 건축, 패션, 프로덕트, 인테리어, IT분야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수요자 중심의 디자인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공공디자인의 결과물'을 만들어간다.

공공디자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로가 배려하며 소통하는 바람직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다.

수요자를 위한 디자인 생산되고 소비돼야

우리보다 앞서 공공디자인을 국가 차원에서 유도한 미국은 1990년 초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법에 의해 공공디자인의 구체적 기준인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7가지 원칙을 만들었다. 그 내용은 △어떠한 사용자라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Equitable Use) △광범위한 개인적 기호와 능력에 맞을 것(Flexibility in Use) △직관에 의한 사용이 가능토록 할 것(Simple, Intuitive Use) △어떤 상황에서도 지각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질 것(Perceptible Information) △오작동에 의한 위험과 실수를 최소화할 것(Tolerance for Error) △피로 등의 신체부담을 최소화할 것(Low Physical Effort) △적당한 공간의 크기를 지닐 것(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디자인을 21세기를 이끌어갈 '문화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디자이너와 정책가들은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디자인'을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유럽에선 스웨덴,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디자인 포올(Design for All)'이란 시스템을 통해 디자인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재인식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 두 시스템이 서구 '공공디자인'의 이전 개념이다.

이후 자연스럽게 공공디자인의 필요성과 인식이 강화되어 수많은 디자인 활동을 통해 상업 목적의 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의 질적 차이를 뛰어 넘은 '수요자 중심의 앞선 공공디자인'의 좋은 선례가 되었다. 이러한 선례는 디자인 활동에 자극을 주어 수요자를 위한 디자인이 생산되고 소비되도록 하는 데 크게 기

동아DB

공공디자인은 버스 정류장, 교통 표지판 등 우리가 접하는 다양한 것들에 심미적 가치와 실용성을 더한다.

동아DB

여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디자인을 21세기를 이끌어갈 '문화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디자이너와 정책가들은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디자인'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공공디자인 운용에 있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영국의 건축·건조환경위원회(CABE)가 내놓은 '스페이스셰이퍼(Space shaper)'의 8가지 부문의 평가기준이다. △공간의 동선과 배치에 쉽게 익숙해질 수 있는가(Access) △이 공간이 제공하는 활동과 기회들은 무엇인가(Use) △공간이 서로 다른 필요성들을 충족시키는가(Other People) △공간이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는가(Maintenance) △공간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한가(Environment) △공간의 외관은 어떠하며, 사용된 소재는 무엇인가(Design and Appearance) △지역 주민에게 있어 이 공간이 지니는 중요성은 무엇인가(Community) △이 공간에 대한 개별 평가자의 느낌과 감상은 어떠한가(You) 등 8가지 평가기준에 따른 41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전문가뿐만이 아닌 일반인도 쉽게 참여 가능한 공공디자인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앞으로 각 지자체와 정부 부처에서 '공공디자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과정'에서부터 다양성을 수용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디자인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리라 기대한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들은 디자인의 유효성을 인식한 디자이너와 관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외적인 것에만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은 다수의 생활 속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사회구성원에게는 그것을 제대로 아끼고 지키는 책임이 주어진다.

"상호 존중 규범… 함께 지키는 책임의식 가져야"

지금까지의 공공디자인은 그 특수성 때문에 트렌드를 무시하거나 객관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문화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을 이루는 디자인의 주관성과 객관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하며 아름다운 공공디자인을 만들어가야 한다. 공공디자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서로를 배려하는 바람직한 사회를 유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은 공공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이전에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작업이다. 더구나 공공디자인은 디자인이라는 예(藝)라는 행위를 예(禮)의 관념에서 꺼내어 아름답게 형상화하는 작업이다. 오래전에는 예(禮)가 상류층만을 위한 행동규제 규칙이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상호존중 의미의 생활규범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 공공디자인의 기준이 아닐까 싶다.

공공디자인이 상징화된 공원을 한번 상상해보자. 나무와 구름이 반영돼 디자인된 공원에는 하얀 구름 모양의 벤치가 놓여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고, 공원 바닥은 저녁 하늘의 비행기가 지나간 흔적처럼 몽글몽글한 패턴으로 장식돼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한다. 또 보라색 수련꽃 모양의 가로등은 연인의 데이트를 더 운치 있게 만든다. 이런 상상들이 현실이 되는 것이 '공공디자인'이다.

10년, 20년 후 우리에게 만들어질 수많은 이야기들이 공공디자인과 함께 기억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서로가 함께 누리며 지킬 수 있는 공공디자인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G

글 · 안병진(동서대 디자인학부 교수)

지역 특색 살린 명품 디자인 미리보기

4대강 16개 보(洑) 대한민국 랜드마크 만든다

4대강 살리기의 16개 보(洑) 디자인이 공개됐다.
물고기가 지나는 어도가 만들어지고 소수력발전소가 들어서는 이들
다기능 친환경 보는 빼어난 모습으로 각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굽이치는 영산강의 기상을 시각화한 영산강 죽산보의 유려한 전망대가 돋보이는 조감도.

4대강 살리기가 실현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4대강의 16개 '명품' 보(洑) 디자인이 공개됐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본부장 심명필)는 10월 27일 전국 4대강 유역에 설치될 보 조감도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16개 보 디자인은 턴키(Turn-key · 설계와 시공 일괄 수주) 1차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대림, 현대, GS, SK, 대우, 삼성물산, 포스코, 두산,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한양건설 등 11개 건설업체가 제시한 것이다. 제출된 보 설계는 향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조형미를 더욱 향상시키고, 수리모형실험 등을 거쳐 기술적인 문제 등은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난해 12월 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을 의결하며 출발했다. 올해 2월 5일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발족한 데 이어 4월 15일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로 확대 개편됐다. 지난 4월 27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용역 중간 발표회가 있었으며 이후 12개 시도 설명회, 전문가 그룹 자문, 물환경학회와 수자원학회 등 관련학회 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8일 마스터플랜이 발표됐다.

16개 '명품' 보 디자인은 이와 같은 마스터플랜에 따라 처음으로 만들어진 4대강 살리기 관련 '실물 디자인 1호'인 셈이다.

한강과 금강 각각 3개, 영산강 2개, 낙동강 8개 등 4대강에 설치될 16개의 보는 주변 경관과 인근 지역의 지리 · 역사 · 문화적 특색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설계됐다. 이들 보는 물놀이 시설과 생태공원 등 지역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쾌적한 수변공간을 조성해 다목적 기능을 갖출 계획이다.

해시계 · 계백 장군 기상 등 지역별 특색 살려

금강 부여보는 백마강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계백 장군이 말을 탄 모습을 형상화했으며, 낙동강 강정보는 후기 가야시대의 중심이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가야금과 수레바퀴토기 등 문화적 상징성을 모티프로 해 디자인했다. 또 영산강 승촌보는 인근 나주평야의 쌀을 형상화했으며, 낙동강 합천보는 멸종위기

에 놓인 국내 유일의 따오기 2마리를 '희망 심벌'로 도입하는 등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살렸다. 또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독창성과 측우기의 과학성 등을 가미한 금강 금남보 등 보마다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디자인되어 단순한 구조물 이상의 상징성과 의미를 갖게 됐다.

16개 보는 '다기능 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보마다 지역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접근할 수 있는 공도교가 설치되고, 전망타워 등이 마련돼 편의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야간조명 시설도 설치돼 밤과 낮이 다른 각양각색의 모습은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친환경도 보 디자인에서 중요한 요소다. 보 주변에는 다양한 어종이 이동할 수 있도록 자연형 어도(魚道)를 설치해 생태계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여울과 하중도(河中島)를 설치해 이동 어류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친환경성을 고려했다. 또 어도 관찰실을 두거나 공도교를 생태학습의 장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보 주변은 생태공원으로 활용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형 어도 설치 등으로 친환경에도 중점

4대강에 설치될 16개 보는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의 부분, 혹은 전체에 움직일 수 있는 가동보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홍수나 가뭄 때 수량 조절뿐 아니라 보 상류의 퇴적물이 용이하게 배출될 수 있다. 유수의 흐름을 이용해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일부 환경단체들이 우려하는 수질 악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

공개된 명품 보에 적용된 가동보는 크게 3종류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즉 수문을 들어올렸다 내렸다 하는 승강식 수문 2종(Roller Gate, Truss Gate), 평소 닫혀 있다가 필요에 따라 수문을 돌리면서 열게 되는 회전형 수문(Rising Sector Gate),

낙동강 함안보가 들어설 곳(오른쪽 위)과 함안보 생태습지의 미래 전경.

4대강의 16개 명품보는 지역 특색이 반영된 디자인으로 각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수문을 들어올리는 높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전도식 수문(Flap Gate) 등으로 보의 위치와 지역 특성에 따라 수문은 수질 관리에 용이하도록 최적의 형태가 적용됐다.

특히 16개 보 모두에 소수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연간 2억7천 8백48만 킬로와트시(kWh)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발전수익이 2백89억원이나 된다. 또 연간 47만 배럴의 유류를 대체하고 15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어 친환경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6개 보 가운데 낙동강의 강정보가 가장 길어 거의 1킬로미터에 가까운 9백53.5미터다. 반면 가장 짧은 보는 금강의 금강보로 2백60미터다.

명품 보 공개 자리에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은 "4대강에 설치될 보는 디자인과 기능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적 요소도 고려됐다"며 "16개 보가 설치되는 지역마다 문화와 역사, 예술을 꽃피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명품이 될 보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16개 보를 국민들에게 선보이고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온라인 보 품평회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10월 28일 시작돼 11월 6일까지 4대강 살리기 홈페이지(www.4rivers.go.kr)를 통해 진행되며, 16개 보 가운데 우수디자인 보를 선정하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G

글 · 박경아 기자

현대적 감성공간 한강

이포보 한강 3공구

4대강 살리기 비전인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을 모티프로 경기 여주군의 군조(郡鳥)인 백로를 형상화해 인간과 자연이 물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공간구성을 했다. 보를 따라 커튼월 분수와 물놀이용 수중광장, 생태광장(모래비치) 등이 조성된다. 가동보는 승강식 수문을 사용해 보의 상하 양쪽으로 물을 보낼 수 있게 함으로써 홍수 때 통수기능을 높여 치수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포보 상부에 설치되는 공도교는 폭 7미터에 총길이 7백44미터로 유지관리용 크레인의 중량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보의 유지관리가 수월하다. 이포보 왼쪽에 설치된 소수력발전소는 전체 발전용량 3천 킬로와트 시설이다. 이포보 오른쪽에는 국내에서 가장 완만한 자연형 어도(魚道)를 만들어 물고기가 상하류를 자연스레 오갈 수 있는 생태환경을 만들게 된다.

여주보 한강 4공구

인근에 유네스코 지정문화재인 세종대왕릉이 자리한 여건을 살려 '세종 여주보, 시대의 문을 연 세종대왕의 위대한 정신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다'를 디자인 콘셉트로 삼았다. 해시계 모양을 반영한 인공섬 '세종광장'을 조성하고, 물 흐름을 조절하는 가동보는 자격루 물시계의 형상을 재해석해 시각화했다. 하천 폭 1킬로미터(저수로 4백80미터, 하천부지 5백20미터) 가운데 보의 길이는 4백80미터이며 보의 전 구간을 전면 가동보로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홍수 때 수문을 모두 개방할 수 있어 홍수 조절에 유리하고, 수질 악화와 퇴적토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하천 폭 1 킬로미터 전체 구간에 설치되는 공도교의 폭은 전 구간이 7.5미터를 유지한다. 유지관리용 크레인 운영과 자전거 운행, 탐방객의 편의를 고려했다. 보의 왼쪽에 자리한 소수력발전소가 반지하라는 점도 특징이다.

강천보 한강 6공구

'남한강 물에 비치는 또 다른 세상' 이란 콘셉트로 디자인해 '물빛누리 강천보' 란 이름을 가졌다. 천혜의 자연환경, 역사와 문화를 가진 지역의 상징 여주8경과 여주군의 군조인 백로가 비상하는 모습, 지역 고유의 이미지를 고려해 웅장함과 고전의 현대적 이미지를 담아 디자인했다. 특히 교각은 황포돛배의 이미지를 살려 날렵한 모습을 하고 있다. 보의 길이는 4백40미터(가동보 3백50미터, 고정보 90미터)로, 가동보는 회전형 수문을 채택해 평상시 수위 조절과 수질오염 방지가 용이하고 1백 년에 한 번 오는 홍수에도 대비할 수 있는 홍수 통제력을 갖추도록 설계됐다. 공도교는 개방감이 뛰어난 복합트러스 교량 형식으로 길이 4백85미터, 폭 10미터로 지어진다. 우기에도 공사가 가능한 공법으로 건설된다.

백제의 함성, 미래를 앞당기는 **금강**

금남보 금강 1공구

국민 공모로 이름이 결정된 '세종시' 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상징물로 설계됐다. 한국의 문화, 예술, 과학의 우수성을 디자인화해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독창성과 측우기의 과학성이 시각화됐다. 또 충남 연기군의 상징인 제비와 금강에 흐르는 물결을 생동적인 형상을 이루도록 디자인해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지도록 표현했다. 보의 길이는 3백60미터(가동보 1백80미터, 고정보 1백80미터)이며, 가동보는 개량형 전도식 수문을 적용하고 있다. 개량형 전도식 수문은 수위 조절이 자유롭고 정밀하며 내구성이 우수하고 수질오염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소수력발전소는 발전용량 9백90킬로와트 규모. 또 자연수로형 어도와 여울 4곳이 설치돼 상하류 생태가 자연스레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부여보 금강 6공구

부여보는 백제 성왕이 수도를 웅진(공주)에서 사비(부여)로 이전한 '사비천도'란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가상스토리를 디자인화해 구성했다. 이에 따라 부여보 디자인은 '백마강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계백 장군'을 가동보 수문 디자인 테마로 하여 부여보가 이루는 치수·이수 개념을 '수문장 이미지'로 표현했다. 부여보는 길이 6백20미터(가동보 1백20미터, 고정보 5백 미터)다. 가동보는 2단 셸게이트 형식의 승강식 수문 2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퇴적토사 처리에 유리하고 유지관리와 보수가 용이하다. 길이 70미터, 폭 7미터의 공도교에는 전망 공간이 설치된다. 소수력발전소는 유량은 많은 대신 낙차가 적은 금강 상황에 적합한 '카플란 수차'를 적용했다. 어도는 다양한 어류의 이동이 가능하고 경관이 우수한 자연형 어도로 계획했다.

금강보 금강 7공구

부강한 백제의 회복을 꿈꾸며 '갱위강국(更爲强國 · 다시 강국을 이루다)'을 주장했던 무령왕을 상징하는 봉황을 디자인 모티프로 차용했다. 금강에 '백제의 황제, 봉황이 지키는 비단수'란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금강보에 '금빛나래보'란 이름을 붙여 봉황의 형상을 금강보 곳곳에 디자인으로 살렸다. 금강보의 길이는 2백60미터(가동보 2백21.5미터, 고정보 38.5미터)이며, 가동보는 수위 조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승강식 주수문과 전도식이 가미된 조절수문을 조합했다. 공도교는 소수력발전소와 연결하기 위해 하천 폭보다 훨씬 긴 4백20미터 이상 규모로 계획돼 있다. 보를 넘어 큰 어종이 오갈 수 있도록 콘트리트 블록 조립형 아이스하버식 어도를 설치하고, 치어 등 작은 어종을 위해 자연하도식 어도도 만들게 된다.

교류의 맛 · 멋의 중심 **영산강**

죽산보 영산강 2공구

'힘차게 굽이치는 기상이 느껴지는 남도의 영산강'을 주제로 설정한 죽산보는 강처럼 굽이치는 형상을 통해 새로운 랜드마크로 연출됐다. 교각 위의 원형 전망대는 굽이치는 물결을 살린 디자인으로 전망대 안에서 사방을 조망할 수 있다. 죽산보는 길이 6백7미터(가동보 1백84미터, 고정보 4백23미터)다. 가동보를 기본계획(1백60미터)보다 24미터 확장해 홍수가 났을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현재 운항 중인 황포돛배 뱃길 연결과 고대 나주선 통항을 고려해 열린 나루(통선문)를 설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공도교는 길이 6백22미터, 폭 4.6미터로, 주변 수변공원과 원활하게 동선이 연결돼 관광객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지역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승촌보 영산강 6공구

영산강 유역 특성을 반영해 '생명의 씨알'이란 콘셉트를 가지고 디자인했다. 5개의 교각은 깨끗한 하천을 상징하는 쌀과 물새알을 모티프로 형상화했고, 가동보는 나주 쌀을 소재로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승촌보의 길이는 5백40미터(가동보 1백80미터, 고정보 3백60미터)다. 가동보는 승강식 수문 형식으로 보 위아래로 물 흐름이 가능하고 하부의 배사 기능도 우수하다. 길이 5백68미터, 폭 12.5미터의 공도교는 평상시 영산강 횡단용 차량 통행 등 용도로 사용하며 승촌생태호수공원, 역사문화마당 등으로 이어진다. 승촌보 상하류의 생태계 연결을 위해 아이스하버식 어도를 적용하고 있다.

함안보 낙동강 18공구

경남 함안의 '아라가야'와 창녕의 '빛벌가야'라는 지역 역사를 반영해 디자인 콘셉트를 잡았다. 낙동강을 품은 큰고니의 날개를 모티프로 디자인된 함안보의 길이는 5백67.5미터(가동보 1백46미터, 고정보 4백21.5미터)다. 가동보는 구조물 높이가 낮은 회전형 수문 방식을 선정했다. '아라빛교'로 명명된 공도교는 길이 6백45.5미터, 폭 11.1미터다. 공도교와 수문 피어(Pier) 사이의 공간은 갤러리나 전시아트리움으로 활용돼 함안보와 수자원 시설 홍보장소로 사용될 계획이다. 소수력발전소는 발전용량 1만2백 킬로와트 규모다. 생태계 보전을 위해 자연형 계단식 어도와 아이스하버식 어도를 설치하기로 했고 샛강과 하중도 3곳, 법정보호종 서식지 등 4개 지구를 보존지구로 설정했다.

합천보 낙동강 20공구

국내 최대 습지인 우포늪 생명물길 연결을 위한 생태복원 계획의 일환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따오기를 낙동강 살리기의 '희망 심볼'로 도입했다. 힘차게 날아오르는 따오기를 상징하는 '새-오름보'라는 별칭이 붙은 합천보의 길이는 3백22.5미터(가동보 2백18미터, 고정보 1백4.5미터)다. 가동보는 승강식 주수문과 전도식 수문 등이 복합된 조절수문으로 구성돼 정교한 수량 조절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길이 6백75미터, 폭 11.5미터의 공도교는 창녕군과 합천군을 잇는 교량의 역할과 다기능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로서의 역할을 모두 충족하도록 차량 통행과 관광객 보행을 모두 고려했다. 보 설치로 단절이 예상되는 수생태계의 이동 통로 확보를 위해 보의 상하부를 잇는 볼랜드식 어도를 설치한다.

달성보 낙동강 22공구

항해를 시작하는 크루즈를 형상화해 새 시대에 대한 희망과 건강한 자연, 문화의 강을 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했다. 달성보의 길이는 5백79미터(가동보 1백20미터, 고정보 4백59미터)로 설계했고, 가동보 형식은 회전형 수문을 적용했다. 평상시와 소규모 홍수 때 관리수위 유지가 용이하고 홍수가 나도 안전 치수가 가능하다. 공도교의 길이는 최대 홍수위를 반영해 설계했고, 폭 7.7미터에 유지관리용 크레인 하중이 반영됐다. 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빗물 처리시설을 설치한다. 이곳 공도교는 복합트러스 거더교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개방감이 뛰어나다. 보의 왼쪽에는 자연형 어도, 오른쪽에는 인공형 어도를 설치해 모든 어종을 위한 생태 연결로를 확보하게 된다.

강정보 낙동강 23공구

'후기 가야시대의 중심' 이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낙동 허브(Hub) 강정보' 란 콘셉트를 가지고 디자인됐다. 강정보의 길이는 4대강 보 가운데 가장 긴 9백53.5미터(고정보 8백33.5미터, 가동보 1백20미터)다. 가동보는 회전형 수문으로 수위 조절과 배사 성능이 우수하다. 가야금을 재현해 '우륵교' 로 이름 붙은 공도교는 탐방객들의 견학과 가동보의 유지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길이 8백10미터, 폭 13.3미터이며 하천의 양안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공도교와 연결된 폭 1.1미터 폭의 보도는 대형 수레바퀴 모양의 전망시설인 '탄주대' 로 이어진다. 수생태계를 위해 아이스하버식 어도와 자연형 어도등 어도 2개가 만들어진다.

칠곡보 낙동강 24공구

인근 지역의 가산바위 전설을 구현한 철우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삼아 '낙동강을 수호하는 철우'를 콘셉트로 낙동강 물길을 형상화했다. 칠곡보의 길이는 4백 미터(고정보 1백68미터, 가동보 2백32미터)이며, 가동보는 승강식과 전도식 수문의 복합형 구조로 설계돼 흔치 않은 대규모 홍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공도교는 길이 4백51.5미터, 폭 7미터다. 보의 흐름에 따라 체험형 전시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생태계 보존을 위한 어도는 상하류 높이 차와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형 어도와 풀형 어도의 복합형 어도가 설치된다. 또 여울 3곳을 만들어 작은 어류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게 된다.

구미보 낙동강 30공구

거북꼬리란 뜻을 가진 '구미(龜尾)'란 이름에서 나타나는 거북과 용을 디자인으로 형상화했다. 구미보의 길이는 6백40미터(가동보 1백3.5미터, 고정보 5백36.5미터)이며, 가동보의 형식은 승강식과 전도식을 함께 적용해 평상시나 홍수 때 유량 조절이 쉽도록 설계했다. 구미보의 유지관리와 관광객들의 이동통로 역할을 할 공도교는 길이 6백49미터, 폭은 4.9~6.4미터로 평소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겸하게 된다. 보의 중앙에는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거북 형상의 전망타워가 있어 공도교를 통해 올라갈 수 있다. 생태계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어종이 오갈 수 있도록 계단식과 아이스하버식을 병행한 복합형 어도를 계획했다. 또 생태학습용 어도 관찰대와 어도 관찰데크도 설치된다.

낙단보 낙동강 32공구

경북 상주와 의성, 구미 등 세 지역의 자연과 역사, 문화가 융합되고 전통적 이미지가 반영된 고풍스러운 경관을 연출하도록 디자인했다. '자연은 이롭게, 사람들은 즐거운, 생명이 유익한 생태환경 조성'이라는 주제의 '이락지천(利樂之川)'을 디자인 콘셉트로 삼았다. 낙단보의 길이는 2백86미터(고정보 1백44.4미터, 가동보 1백41.6미터)다. 가동보는 홍수 때 유수 소통을 최대화하고 신속한 조작과 능동적 대처가 가능한 셸 타입의 2단 승강식 수문을 계획했다. 1백41.6미터의 공도교는 '사람과 함께하는 공간'이란 주제 아래 전통 디자인과 야간 조명을 특색으로 내세우고 있다. 자연형 수로와 아이스하버식 복합형 어도가 설치되며 주변에 생태공원과 수변공원 등이 들어선다.

상주보 낙동강 33공구

상주에 전래되는 '오복동의 전설'이란 지역 특성을 반영해 '5가지의 낙(樂)'이란 콘셉트를 가지고 디자인했다. 상주보의 길이는 3백35미터(가동보 1백5미터, 고정보 2백30미터)로, 승강식 가동보를 설치해 수질 관리와 홍수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설계됐다. 공도교는 길이 5백40미터, 폭 5~11미터로 전망대가 설치된다. 소수력발전소는 사용수량 및 정격낙차에 적합하고 효율이 우수한 '카플란 수차' 방식을 선정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자연형 수로식 어도와 여울, 하중도를 설치해 어류를 위한 휴식공간으로 만든다. 조류 관찰대와 강수욕장, 생물서식처 등도 들어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모색한다. G

글 · 박경아 기자

프레이저 모리슨 최고경영자협회 회장

"4대강 살리기는 선진국 진입 핵심사업 세계적 성공 사례로 남을 것"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선진국 진입을 앞둔 한국의 국가적 프로젝트로 가장 적합하다."
세계적인 건축설계회사 RMJM을 이끌고 있는 프레이저 모리슨 최고경영자협회(CEO) 회장이 우리나라를 찾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단히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 그렇습니다. '녹색 효과(Green Effect)', 여가 선용, 환경 개선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건축설계회사 RMJM을 이끌고 있는 프레이저 모리슨(61) 최고경영자협회(CEO) 회장이 10월 23일 서울을 방문, <Weekly 공감>과 인터뷰를 가졌다.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사에 본부를 둔 CEO는 세계 50개국의 지도층 인물 2천명을 회원으로 둔 비영리 교육단체다.

1956년 설립된 RMJM은 영국 에든버러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건축설계회사다. 미국과 유럽, 중동, 아시아 등지의 17개 건축설계사무소에 1천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미국의 건축설계전문 미디어 그룹인 BDC(Building Design+Construction)가 선정한 지난해 세계 6위 업체다.

RMJM이 설계한 두바이 수변도시 '메디나 알 수르'(위)와 쑤저우의 '종양 수변지역' 조감도.

RMJM은 특히 수변도시 디자인(River Urban Design)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두바이에 들어설 세계 최대 수변도시 '메디나 알 수르' 설계를 맡았으며, 중국 장쑤성(江蘇省)의 호반 도시 쑤저우(蘇州)의 '종양 수변지역(Zhongyang River District)'을 설계하기도 했다. 영국 내에서는 2002년 폴커크에서 완공된 '밀레니엄 휠 보트리프트(Millennium Wheel Boatlift)'를 설계, 무려 35미터 높이 차이가 나는 두 강을 이어 배를 운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유명하다.

2000년까지 25년간 고향인 스코틀랜드의 모리슨건축(Morrison Construction)을 이끌기도 했던 모리슨 회장은 스코틀랜드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8년 기사작위를 받았다.

세계의 건축과 도시설계는 최근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까.

최근의 세계 건축 및 도시설계의 흐름은 '물과의 조화(the Harmony with the Water)'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미 유럽권에서는 1960~1970년대부터 수변(Water Front)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하천의 수질 개선을 도모해왔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에 도시설계 전문가(Urban Design Specialist)로 참여하면서 '하천과 인간의 조화(the Harmony between the River and Human being)'라는 화두는 언제나 저를 매료시키고 있는 모티프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영국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국토가 넓지 않아 개발의 한계가 명확한 영국도 이미 지난 2백여 년간 5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하천 개발을 통해 산업적 가치를 확대하고 환경을 재건하며 관광가치를 확보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하천 개발은 단순한 물류·교통수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조영철 기자

프레이저 모리슨 최고경영자협회(CEO) 회장은 물과의 조화에 초점을 맞춘 세계 건축과 도시설계의 경향을 전하며 4대강 살리기는 시의적절한 국가적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수로 개발 사업은 지금까지 훼손된 자연을 회복시켜 인간과 함께 공생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역시 유럽의 경우와 같이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는 길'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설계되고 진행된다면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환경개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공존의 길을 찾는다는 데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영국 버밍엄지역 등에서 수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등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은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세계의 경제인들 대부분이 그 어느 국가보다 경제위기를 빠르게 탈출한 한국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접했을 때 그 아이디어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선진국 진입을 앞둔 선두권 개발도상국가로서 한국의 국가적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 바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국토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가치, 환경 개선, 지역 개발과 관련해 한국이 어떠한 미래를 그려나갈지는 앞서 예로 든 두바이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명합니다. 경제위기의 출구전략이 필요한 가까운 미래(Near Future)에 이러한 개발 가능한 국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시설계 전문가로서 한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수변 개발은 다양한 조건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검토돼야 합니다. 앞서 말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는 산업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이 모두 충분히 고려돼야 가능한 목표입니다. 특히 21세기는 감성의 시대인 만큼 자연주의(Naturalism)를 최대한 활용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된다면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의 청계천처럼 말이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건설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자연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최고의 환경보전이죠. 그러나 이미 지난 수세기에 걸쳐 인간은 자연에 산업화라는 짐을 지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수로 개발 사업은 오히려 지금까지 훼손된 자연을 회복시켜 인간과 함께 공생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맨체스터나 칼레도니아 운하 등 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오히려 수로 개발을 통해 환경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역시 유럽의 경우와 같이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는 길'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설계되고 진행된다면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환경개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한국 정부에 꼭 필요한 조언을 해주십시오.

도시설계 전문가로서 그동안 세계 곳곳의 수변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그 행복이 돌아가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충고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한국에서도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환경자원이 개선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기본 개념을 잃지 않는다면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신종플루 괴담’ 현혹되지 마세요

잘못된 정보 과대 포장돼 인터넷 등서 기승… “악의적 괴소문일 뿐”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신종 인플루엔자A(H1N1 · 신종플루)가 초중고 학생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신종플루 괴담까지 나돌며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만들고 있다.
신종플루 괴담은 한때 유행했던 ‘광우병 괴담’을 연상시키며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조영철 기자

최근 초중고생들 사이에 신종플루와 더불어 근거 없는 괴담까지 나돌아 잘못된 대응이 우려되고 있다.

“애들아, 신종플루 예방주사 학교에서 맞힌다는데 그거 절대 맞지 마.”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떠돌고 있는 신종플루 관련 문자메시지다. 초중고생 신종플루 환자가 늘고 휴업하는 학교가 증가하면서 초중고생들 사이에 근거 없는 신종플루 괴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 고교생이 휴대전화로 받아 보건당국에 신고한 이 문자메시지는 이어 “임상시험을 해야 하는데 오래 걸려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건데 백신이 아니고 독감바이러스를 넣어서 이겨내면 신종플루 안 걸리고 면역력 약한 애는 그냥 죽는 거야”라고 쓰여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조사 결과 ‘백신 괴담’으로 번진 이 소문의 시발점은 고등학생 두 명이었다.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신종플루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린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교 1학년 구모(16) 군과 노원구의 여고 2학년 이모(17) 양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이들이 별 뜻 없이 올린 글과 문자메시지는 하루 사이에 주요 포털사이트, 수천 통의 문자메시지로 확산됐다.

시중에는 이러한 괴담 외에도 “신종플루 환자가 8명 이상이면 휴교를 한다” “신종플루는 의도적으로 퍼뜨린 거다”라는 등 온갖 괴담이 떠돌며 잘못된 상식과 정보로 포장돼 초중고생들의 신종플루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가 집계한 신종플루 환자 집단발생 현황을 보면 10월 5~11일 사이 신종플루 환자 발생 학교는 1백37개교로 오히려 9월보다 적었다. 그러나 10월 12~18일은 3백36개교, 10월 19~24일은 8백70개교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며 온갖 신종플루 괴담도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 또 확진 환자 연령별 현황(10월 19~24일)에서도 초중고생에 해당하는 10~19세가 58퍼센트로 가장 많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이와 관련, “최근 일부에서 신종플루 백신에 대한 악의적인 괴소문이 유포되고 있다”며 괴담 문자메시지 사례를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근거 없는 괴소문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청소년 중심으로 문자메시지… 최초 유포자 2명 조사 중

신종플루 괴담이 특히 백신에 집중된 데 대해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10월 26일 현재 의료요원 3천5백76명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 접종 결과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18세 이하에 대한 백신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특이한 부작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아울러 “18세 미만에 대해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성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신종플루 의심 또는 확진 학생이 발생하면 즉시 등교중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학급 또는 학년 단위의 부분 휴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조명연 사무관은 "초중고생 환자가 많은 이유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 환기가 잘되지 않는 데다 감기 시즌과 겹치고, 초중고생은 어느 연령대보다 환자 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금방 눈에 띄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교실 내 확산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별 휴업 가이드라인 발표… 인근 학원도 행정지도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휴업학교 수가 3백11곳(10월 29일 기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학교를 중심으로 한 신종플루의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 간 합의에 따라 지역 단위 공동 휴업이 가능토록 하고 교육청별 휴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30일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선 학교장으로 하여금 신종플루 의심 또는 확진 학생이 발생하면 즉시 등교중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학급 또는 학년 단위의 부분 휴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학교 전체 휴업을 결정하되 휴업을 결정하는 기준은 교육청별 휴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0월 28일 치료 거점병원인 서울 국립의료원을 격려차 방문해 신종플루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교육청별 휴업 가이드라인은 △학교급(신체 성숙도가 낮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순, 특수학교는 최우선으로 고려) △학교 규모(학생 수 많은 학교 우선) △인구 밀도(아파트, 대도시 등 지역 우선) △감염률(높은 학급-학년-학교 순) △확산 속도(빠른 학급-학년-학교 순) 등을 반영해 교육청별로 결정한다. 이 가운데 학교 전체 휴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감염률과 확산 속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뿐 아니라 학원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해 휴업을 결정한 학교 인근에 있는 학원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수능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일점검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발생 시 즉시 치료를 하되 생활 리듬이 바뀌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도록 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美 신종플루 확산… 백신 확보 인구 8%선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 지난 10월 24일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포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앞서 네덜란드 정부도 10월 23일 신종플루 대유행을 선포했으며, 영국 정부는 이미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따라 미국은 신종플루 환자용 별도 진료소 설치, 병상 확보 등 조치를 취했다. 이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들. 우리나라는 비상사태 선포를 하지 않고도 전국 4백72개 치료 거점병원을 지정했고, 이 중 3백99개소가 별도 진료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치료 거점병원에서는 총 8천9백80개의 격리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신종플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백악관 정례브리핑 내용에 신종플루 상황을 추가했으며 국민들에게 손을 잘 씻도록 당부하고 있다.

전 세계의 신종플루 환자와 사망자를 집계하고 있는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의 최근 통계(10월 25일 기준)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5천8백50명이 사망한 가운데 미국은 1천4명으로 브라질(1천3백68명) 다음으로 많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 내에서 지난 4월부터 7월 말까지 최대 5백70만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CDC에 따르면 10월 29일 현재 미국 내에서 사용 가능한 백신은 총 인구 3억명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2천4백80만명분이다. 이는 당초 10월 말까지 4천만명분의 백신이 확보될 거라고 밝혀온 것에 못 미치는 수량이다.

동네 병원에서도 처방받을 수 있어요

전국 모든 약국에 93만5천명분 타미플루 공급

신종플루 확산이 가속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강화되고 있다.
병원에서는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아닌 의심 환자에게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고 전국의 모든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가능해졌다. 신종플루 확산의 고삐를 죄려는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0월 30일부터 전국 모든 약국에서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전국의 1만8천5백35개 약국(거점약국 제외)에 93만5천명 분량의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네 병·의원에서 의사 처방을 받으면 가까운 어느 약국에서나 타미플루 등을 구할 수 있게 됐다. 약값은 정부 비축분인 만큼 무료이며, 병·의원 진단 시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 비축분 항바이러스제를 약국당 50명분씩 배분됐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이와 함께 이날 오후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내과개원의협의회, 소아청소년과 개원의협의회 등 6개 개원의협의회가 참석한 가운데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확진검사 없이 의사의 임상적 진단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플루 의심 환자가 내원할 경우 확진검사(PCR) 불가 등을 이유로 환자들을 거점병원에 보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근 거점병원은 환자들이 몰리며 대기 기간이 길어져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6개월 영아도 투약… '독한 약'이라 피하지 마세요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국민들에 대해서도 "신종플루가 의심되면 지체 없이 동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신속하게 투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최근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도 일선 병원에서 부작용을 우려해 타미플루 처방을 주저하고, 신종플루 확진 혹은 의심 환자들이 "바이러스가 독하면 약도 독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미플루의 경우 양만 조절하면 6개월짜리 영아도 먹

신종플루 거점병원에 환자가 몰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 모든 약국에서 타미플루 투약이 가능해져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종플루에 대처하게 됐다.

연합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은 신종플루 예방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다.

는 약이고, 조류독감 등으로 인해 개발된 이후 이미 몇 년째 사용하고 있어 큰 부작용은 없다"는 것이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의 설명이다.

신종플루 의심 증세가 있을 때의 초기 대응이 중요함은 지금까지 신종플루 사망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 따르면 10월 30일까지 사망자 34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18명이 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4명이 10일 이후에 각각 숨졌다. 2명은 사망 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10일 이내에 숨진 18명 가운데 10명은 첫 감염 증세가 나타난 뒤 닷새 이내에 숨졌고, 하루 만에 사망한 경우도 2명이나 됐다. 최근 확진 환자의 20퍼센트에서는 발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으므로 신종플루 초기 대응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신경계질환자·특수학교 등 우선 접종 대상 포함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전염병관리과장은 "고위험군이 아닌 건강한 사람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단을 받고 항바이러스제를 빨리 투약해야 한다"며 "타미플루 정부 비축분은 여전히 2백60만명분 가량이 남아 있고 연말까지 6백60만명분 분량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어서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경계질환자는 신종플루에 걸리더라도 자신이나 주변에서 감염 사실을 알아차리는 데 한계가 있어 백신접종 순위에서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특수학교를 우선 접종 대상으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10월 26일 뇌성마비 1급과 네이거증후군(안면 두개 기형)을 앓아온 초등학생 남녀 2명이 신종플루 증세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아 입원 1, 2일 만에 숨진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도 올봄과 여름 신종플루로 사망한 어린이 36명 가운데 3분의 2가 뇌성마비 같은 신경계통 질환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런 아이들은 신경계통이 약해 바이러스가 더 잘 공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주변에서 감염 사실을 몰라 조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도 사망률이 높은 원인으로 추정된다. G

글 · 박경아 기자

신종플루 행동요령

학생

- '1830 손씻기 운동'을 실천한다. 매일 8회,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으면 손에 묻은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떨어져 나간다.
- 기침할 때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을 철저히 준수한다.
- 학교나 학원에서는 실내 환기를 자주 한다.
-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기침, 목아픔, 콧물이나 코막힘 중 하나)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는다.
- 신종플루로 의심되면 학교나 학원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출입을 삼가고 마스크를 쓴다.

일반인

-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 음주를 삼가고 술잔을 돌리지 않는다.
- 흡연도 신종플루의 위험요인이다.
- 개인 식기를 사용하고 숟가락, 젓가락도 개별적으로 사용한다.

임산부

-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다. 증상이 심할 땐 거점병원을 찾는다.
-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환자와 대면 업무를 하지 않는다. 최소한 호흡기 분비물에 노출되는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 신종플루에 감염되거나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아도 모유 수유에 문제는 없다. 단, 아기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을 경우 분유로 대체하거나 모유를 짜내 다른 사람이 대신 먹인다.
- 계절독감 백신이 임신 중 어느 시기에나 접종 가능하듯 신종플루 백신도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접종 가능하다.

신종플루 고위험군 또는 기타 질환자

- 신종플루 고위험군(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병 등 질환이 있거나 비만이거나 임신부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또는 59개월 이하 어린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한다.
-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출입을 삼가고 외출 시 마스크를 사용한다.
-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해도 계속 열이 나거나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병원을 찾아 다시 진료를 받는다.
-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쉬면서 수분을 많이 섭취한다.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사용한다.
- 어린이들의 경우 열을 내린다고 집에서 아스피린을 먹이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되자 전국 병원들이 신종플루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왼쪽).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의심 증상 있으면 누구나 **항바이러스제 처방**

고열 증세가 없는 감기 환자도 신종플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의심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신종플루가 확산되자 보건복지가족부는 10월 26일 예전보다 강화된 신종플루 대처 지침을 내놓았다.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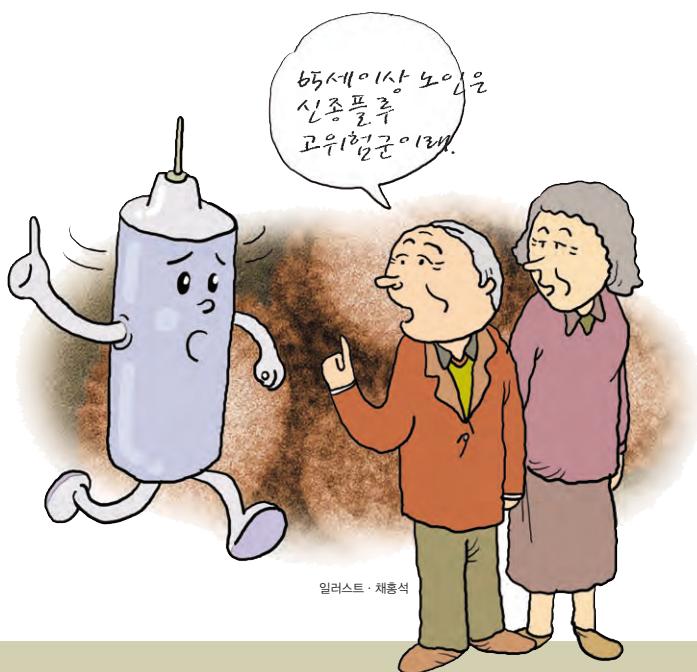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신종플루로 의심되나.

신종플루는 뚜렷한 감기 증상(섭씨 37.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 콧물, 코막힘)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감기 증상이 있거나 폐렴 등 호흡기질환으로 입원했던 사람, 만성질환자, 65세 이상 노인 등 신종플루 고위험군은 우선적으로 신종플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확진 환자의 20퍼센트는 발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신종플루 증상이 의심되면 발열 증상이 없더라도 일단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종플루 고위험군이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종플루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노년층과 생후 59개월 이하 유·소아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의 폐질환자 △선천성 심장질환, 만성심부전증, 협심증 등 허혈성 심질환(단순 고혈압 제외) 등의 만성심혈관질환자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 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환자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 환자 등의 신장질환자 △간경화 등 만성간질환자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악성종양 환자 △비장이 없는 무비장증, 비장 기능 이상자, 에이즈 감염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이 저하된 환자,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한 달 이상 복용자,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등의 면역 저하자 △장애인 중에서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신경계질환자 △임신부 등이다.

신종플루가 의심되면 어디서 진료 및 처방전을 받아야 하나.

우선 동네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고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는다. 이 처방전을 전국의 모든 약국에 갖고 가면 항바이러스제를 구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신종플루 확진 환자나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했으나, 10월 26일부터는 의심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방역을 위주로 하므로 중증으로 발전했다면 가까운 거점병원을 찾아야 한다.

일러스트 · 채홍석

신종플루 거점병원에 가면 더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나.

동네 병원에서도 의심 증상이 있다고 진단받거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진료 초기부터 거점병원을 찾을 필요는 없다.

신종플루 환자와 근접 접촉한 경우 신종플루 검사를 받아야 하나.

신종플루 근접 접촉자란 환자와 1, 2미터 이내에서 1시간 이상 접촉한 사람으로 학생의 경우 가까운 자리에 앉은 같은 반 학생이나 친한 친구, 군인이나 전경의 경우 같은 내무반원 등이다. 근접 접촉자는 전염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기 증세가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찾아 신종플루 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의심 증상이 없다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신종플루 의심 환자가 병원을 방문할 때 환자 후송은 어떻게 하나.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개인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되도록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승용차 등을 이용해 거점병원을 방문한다. 스스로 가기 힘든 중증 환자는 119에 연락해 후송한다.

신종플루 검사에 약식 검사와 확진 검사가 있다고 하는데.

신종플루 검사는 RAT와 PCR의 두 가지가 있다. RAT는 약식 검사로 인플루엔자A 바이러스인지 여부만 판단하므로 약식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해도 이는 수많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중 하나라는 뜻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약식 검사를 권장하지 않으므로 신종플루 감염 여부를 확진하려면 PCR 라는 검사법을 사용해야 한다. 확진 검사는 어느 의료기관에 가더라도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받을 수 있고, 확진됐다면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신종플루를 확진받아 5일치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았다. 3일치를 투약한 후 증상이 사라졌는데도 남은 약을 다 먹어야 하나.

신종플루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항바이러스제를 5일치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종플루에 감염된 학생이 일주일간 집에서 쉰 후 등교하려고 한다. 학교에서 '완치 확인서'를 갖고 오라는데,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

신종플루가 다 나았음을 입증하는 '완치 확인서'는 없다. 그래도 학교에서 완치 확인서를 요구한다면 '치료를 받았고 증상이 모두 사라졌다'는 의사 소견서 정도로 대체할 수 있다. 학생이 일주일간 집에서 쉬며 치료를 받고 증상이 없다면 학교에 나가도 된다.

동네 병원에서도 의심 증상이 있다고
진단받거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진료 초기부터 거점병원을 찾을 필요는 없다.

일러스트 · 채홍석

신종플루에 감염됐다가 완치됐다. 감기에 자주 걸리듯 신종플루에 다시 걸릴 수 있나.

신종플루 바이러스에 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일반 감기와 달리 한번 감염됐다가 회복되면 항체가 생겨 재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종플루의 잠복기와 전파 기간은.

신종플루 잠복기는 대부분 2, 3일이고 최장 7일이다. 7일간 격리하고 감시하는 이유가 바로 최장 잠복기가 7일이기 때문이다. 증상이 나타난 날로부터 보통 5일째까지 전파될 수 있고, 길게는 7일째까지다. 소아와 청소년의 경우는 이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임신부는 신종플루에 대해 더 위험한가.

임신부가 더 위험하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과거 계절인플루엔자 유행 시, 그리고 다른 형의 인플루엔자 대유행 당시 임신부들이 인플루엔자 감염에 따른 합병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임신부가 신종플루에 감염된 경우 그에 따른 체온 상승이 태아 기형이나 조산 같은 합병증의 위험성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종플루가 의심되면 바로 평소 다니던 병원을 찾도록 하고, 신종플루 증상이 심하면 거점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는다. G

글 · 최은숙 기자

10월 27일 일부 의료기관 종사자를 우선으로 신종플루 예방 접종이 실시됐다.

"신종플루 백신, 안전합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우선 접종… 부작용 보고 없어

전 세계가 신종플루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에 정부는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한 범국민 차원의 대대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신종플루 예방 백신에 대해 궁금한 점들과 예방접종 주의사항을 소개한다.

신종플루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국, 유럽 등에 이어 세계 8번째로 백신을 자체 생산하게 되면서 접종을 개시하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국민의 35퍼센트에 이르는 1천7백16만명에게 10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과장은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일부 의료기관 종사자 등 우선 접종 대상자 3천5백76명에게 10월 26일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한 결과 10월 28일 현재까지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신종플루 백신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접종 순서는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 따라 감염 위험성과 전염차단 효과가 큰 순서로 결정됐다. 올해 말까지 일부 의료·방역요원, 학생, 영·유아, 임신부 순서로 접종하고 내년 1월 이후에는 노인, 만성질환자, 군인, 기타 대응요원 등에게 접종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은 보건소, 학교, 위탁 의료기관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건강한 노인과 의료급여수급자는 보건소에서, 초중고교생들은 보건소의 학교 예방접종팀이 방문한 학교에서 예방접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중 본인 의사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 접종도 가능하다. 그 외 영·유아,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해야 한다.

위탁 의료기관 가면 접종비 본인 부담해야

위탁 의료기관 접종 시 백신은 무상 공급되지만 접종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접종 의료기관은 11월 중순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nip.cdc.go.kr) 및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방접종비는 의원급 기준 1만5천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예방접종비는 관행수가(2008년 기준 1만5천~1만6천원)를 기준으로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이 안에는 의사진찰비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일반인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은 정부 구매분 이외 백신 허가가 나오는 대로 민간 의료기관에 유

통시킬 계획이다. 허가 기간을 고려할 때 내년 1월부터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운영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신종플루 우선 접종 대상자에 해당된 사람이라도 최종 접종 여부는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세 가지 당부 사항을 지킬 것을 권유했다. 먼저 과거 계절독감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계란 섭취 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적이 있다면 접종을 받지 않을 것을 권했다. 또한 건강한 상태에서 접종을 받을 것과 사전 예약을 한 경우만 접종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예약하고 접종 일정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주)녹십자가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 생산한 신종플루 예방백신 '그린플루-에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이 백신을 허가할 때 동물시험부터 임상시험까지 거치며 안전성을 확인했다. 성인과 노인 총 4백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 치명적인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상자 가운데 46.2퍼센트인 2백19명에게 통증이나 피로감 같은 가벼운 부작용 증상이 나타났지만 대부분 예측된 부작용으로 중대한 이상약물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일본, 중국, 호주 등 해외 임상시험 결과와 비교했을 때도 면역원성과 부작용 발생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10월 30일부터 전국 모든 약국서 타미플루 · 릴렌자 취급

그러나 신종플루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신속한 진료받기'와 '개인위생 준수'는 중요하다. 발열이나 기침, 콧물, 코막힘 등 급성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어느 의료기관이라도 찾아가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신종플루 의심 환자의 경우 확진검사 없이 바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하다. 그동안 전국 1천6백22개소의 거점약국에서만 조제받을 수 있었던 항바이러스제는 10월 30일부터 전국 모든 약국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청결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로 가리고 하는 등 개인위생에 철저해야 한다. 신종플루는 손을 물과 비누로 씻는 즉시 바이러스가 파괴되고, 알코올 성분의 손 세정제를 사용해도 30초 내에 바이러스가 파괴된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되도록 가지 말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는 등 외부 접촉 차단에 신경 써야 한다.

동아DB

신종플루 백신 접종이 본격화돼도 몸에 이상이 있을 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 받거나 평소 손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한편 당초 11월 18일부터 예정이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플루 백신 학교접종은 11월 11일부터로 일주일 앞당겨졌다. G

글 · 김민지 기자

문의전화 Tel 129, 1577-1000

신종플루 백신 접종 일정

대상자	시행 일정	장소
의료 종사자	10월 27일부터	자체 의료기관
거점약국 종사자 조산사	11월	보건소
119구급대원 관련 실험실 요원		
초중고등학생	11월 18일~12월	학교
영·유아(6개월~만 6세 이하) 임신부	12월	동네 병·의원
만성질환자	2010년 1월	동네 병·의원
노인		보건소
군인		각급 군부대
일반인		민간의료기관

신종플루 예방접종 시 주의사항

신종플루 예방접종 시 다음과 같은 금기사항 및 일반 주의사항, 어르신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접종하도록 한다.

먼저 대표적인 접종 금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백신 성분이나 계란에 대해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성 쇼크 증상으로 호흡 곤란, 쉰 목소리, 두드러기 등이 특징)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이전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길랑-바레 증후군(환자의 면역체계가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근력 약화와 마비를 일으키는 신경계 질환)이나 다른 신경계 이상이 나타난 경우.

접종을 하고 나서는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숙지하도록 한다. 접종 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지 살펴보기 위해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무른다. 귀가한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지 관찰한다.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백신을 맞은 접종 부위를 청결히 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도록 한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기존 만성질환이나 체력 저하에 따른 예방 접종 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예방접종 일정을 미리 예약해 대기시간을 최소화한다. 대기하는 동안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나 아픈 증세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말한다.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면서 급성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최소 3일간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또 접종 후 경미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부위가 아프거나 부을 수 있는데 이런 증상은 예방접종 직후 발생해 대부분 1, 2일 이내에 사라진다.

초중고생 우선 접종, **2차 감염 막는다**

신종플루 백신 접종은 의료요원, 학생, 영·유아 및 임신부, 군인, 노인, 만성질환자 순으로 시행된다. 감염 위험성과 감염차단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신종플루 백신은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고 임신부에게도 안전하다.

Q&A

초중고교 학생 접종을 다른 대상자보다 빨리 하는 이유는.

신종플루 감염자의 2분의 1 이상이 초중고교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기 때문이다. 또 학생들이 신종플루의 주요 전파 감염원이 되어 가족 내 노약자 및 만성질환자 등에게 2차 감염을 일으켜 중증합병증 내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 초중고교 학생들을 먼저 예방접종함으로써 전체 감염자 수를 줄이고 고위험군에 대한 전파 감염을 차단해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대상자보다 65세 이상 노인의 접종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은 이유는.

신종플루 감염자 중 65세 이상 연령은 감염률이 1퍼센트에 불과할 정도로 감염 위험이 낮은 편이다. 접종 초기에는 전체 대상자를 접종할 만큼 백신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감염 및 발병 위험이 높은 집단에게 우선적으로 접종하게 된다. 65세 이상 노인은 젊은 층보다 계절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 위험이 높으므로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받는 것을 권한다.

일러스트 · 채홍석

일반인은 언제쯤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나.

건강한 성인은 정부 구매분 외에 생산되는 백신 물량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는 대로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접종받을 수 있다. 이때 비용은 백신 비용까지 전액 본인 부담이다.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해도 신종플루 예방에 도움이 되나.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신종플루 예방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계절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는 없다.

계절인플루엔자 백신과 신종플루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나.

현재 국내의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킨 약독화(弱毒化) 생(生)백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바이러스를 죽여서 만든 불활성화 사(死)백신이다. 신종플루 백신 역시 대부분 불활성화 사백신이다. 불활성화 사백신의 경우 두 종류 백신을 동시에 또는 연달아 접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계절인플루엔자 백신과 신종플루 백신이 양쪽 모두 불활성화인 경우 동시 접종 또는 전후 접종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또 이들 중 한쪽만 약독화 생백신인 경우에도 동시 접종 또는 전후 접종이 가능하다. 단, 두 백신이 모두 약독화 생백신인 경우에는 동시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다.

신종플루 백신과 그 외 다른 백신의 동시 접종이 가능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종 예정인 신종플루 백신은 모두 불활성화 사백신이므로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종플루 백신은 폐렴백신을 포함한 다른 백신과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 신종플루 약독화 생백신의 경우도 계절인플루엔자 약독화 생백신을 제외하고는 다른 생백신 또는 불활성화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6개월 이상 영·유아의 경우 신종플루 백신을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신종플루 백신에 대한 소아 임상이 진행 중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임상 종료 후 안내받을 수 있다.

5
신·종·플·루
예방접종 궁금해요

신종플루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초중고교에서 발생하고 있다. 초중고교 학생들을 먼저 예방접종함으로써 전체 감염자 수를 줄이고 고위험군에 대한 전파 감염을 차단해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DB

보건당국은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기로 했다.

신종플루 백신은 임신부에게 안전한가.

신종플루 백신이 임신부 또는 태아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은 밝혀진 바가 없다.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은 수년간 임신부에서 접종이 권장돼왔다. 현재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임신부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으로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신종플루 백신은 계절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일한 생산 공정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임신부에게는 보존제 또는 면역증강제가 포함돼 있지 않은 불활성화 백신이 접종될 계획이다.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이 임신 중 어느 시기에나 접종이 가능하듯이 신종플루 백신도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부에게 접종이 가능하다.

백신 접종 후 면역이 생기기까지 시일이 얼마나 걸리나.

예방접종 후 즉각적으로 면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보통 10~14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발표에 따르면 신종플루 예방접종 후에 8~10일이면 방어면역이 생성된다.

예방백신 접종 후 신종플루 면역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계절인플루엔자는 건강한 젊은 성인에게 유행 바이러스와 잘 매치되는 백신을 접종했을 때 70~80퍼센트 정도의 면역 효과가 있으며, 노약자 및 만성질환자에게는 그 효과가 이보다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신종플루의 경우도 임상시험 결과 계절인플루엔자 백신과 면역효과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에 면역증강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면역증강제를 사용하면 백신의 항원량을 2분의 1~4분의 1로 줄이더라도 동등한 면역성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신종플루 백신 생산량을 2~4배 정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 백신의 생산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도 면역증강제 사용을 권고한 바 있다.

신종플루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예방접종이 필요한가.

정확한 검사방법(RT-PCR)으로 신종플루를 확진받은 환자는 방어면역이 생성됐으므로 예방접종이 필요없다. 하지만 신속항원검사로 진단받은 때에는 확진이 아니므로 접종대상자에 포함됐다면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발열 또는 설사 증세가 있을 때도 예방접종이 가능한가.

열이 꽤 높거나 심한 열성 질환을 앓을 때는 접종을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미열, 상기도 감염, 중이염이나 가벼운 설사가 있을 때는 접종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건강한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으므로 무리하게 접종받지 않도록 한다. G

글 · 이혜련 기자

강가에 깎아지른 듯한 바위산들이 희뿌연 안개에 싸여 있다. 돛대를 올린 나룻배 수십 척에는 강태공들이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는 듯하다.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은 풍경이다. 그런데 눈을 씻고 들여다보면 바위산은 빌딩숲이고 돛대는 크레인이다. 이 기발한 공익광고의 제목은 안개의 정체를 알려주는 '산업공해'다. 부제는 더 의미심장하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게 하라. Let the hills be hills and the rivers be rivers.'

중국 상하이 광고회사 JWT가 제작한 이 광고는 올해 6월 프랑스 칸에서 열린 '2009 칸 국제광고제' 때 옥외광고 부문 은상을 받았다. 10월 22일 시작돼 11월 4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를 순회하는 '2009 칸 국제광고제 수상작 페스티벌 & 환경 특별전'에는 이 광고를 비롯해 환경 공익광고 및 보도사진 83점, 2009년 칸 국제광고제 수상작 1백여 편, 필름 부문 수상작 등이 전시 상영된다. 장소는 △서울의 광화문광장, 이화여대 ECC 다목적홀, 아트하우스 모모 △부산의 부산디자인센터 △대구의 대구경북디자인센터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를 순회하는 칸 국제광고제 수상작 연례 전시 외에 칸 국제광고제 한국사무국이 기획한 환경 특별전인 '물과 환경 공익광고'와 '한국의 강' 전시회가 함께 열리는 점이 이채롭다. 한국사무국의 임현호(41) 대표는 최근 광고계의 중요한 이슈인 환경 문제를 부각하기 위해 환경 특별전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2009 칸 국제광고제 수상작 페스티벌 홍보 책자.

"올해 칸 국제광고제 세미나에서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가 몰고 올 인류의 재앙을 경고했습니다. 광고인들도 환경에 주목해서인지 친환경을 부각하는 출품작이 꽤 늘었어요. 예를 들어 칸에서 8년째 환경 공익광고를 전시해 온 비영리 광고단체 액트야말로 광고에 환경문제를 부각시킨 대표 주자죠. 그래서 이번에 액트의 공익광고와 한국광고공사의 환경 광고 등을 엮어 '물과 환경' 특별전을 기획하고, 더불어 국내 사진기자들이 찍은 사진을 모아 '한국의 강'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1953년 시작해 올해로 56회째를 맞은 칸 국제광고제는 해마다 6월 셋째 주에 열린다. 세계 굴지의 광고회사들이 수만 점의 광고작품을 출품해 경연을 벌여 '광고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축제다. 올해는 필름, 인쇄, 옥외, 사이버, 매체 기획, 사이버, 디자인, 라디오, PR 등 11개 부문에 2만2천6백52편이 출품되었고, 그중 6백71편이 상을 받았다. 한국은 1백68편을 출품했으며, 한국심장재단의 캠페인 광고 '리슨', 니콘의 지하철 광고 '센서리 라이트 박스'가 각각 은상과 동상을 차지했다. G

글 · 최은숙 기자

칸 국제광고제 한국사무국 www.canneslions.co.kr

한국의 강… 칸을 적시다

10월 22일 시작해 11월 4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에서 열리는 '2009 칸 국제광고제 수상작 페스티벌'에는 환경 관련 광고가 눈에 많이 띈다. 이 행사는 칸 국제광고제 수상작 외에 최근 광고계의 화두인 환경 이슈를 엿볼 수 있는 환경 특별전을 함께 선보였다.

2009 칸 국제광고제 수상작 페스티벌 & 환경 특별전

조영철 기자

10월 29일 이화여대 잔디광장에서 열린 전시회 전야제에서 관람객들이 환경 사진을 감상하고 있다.

1
'종이 위의 전장'.
젊은 농구 선수 10명의 이미지를 인쇄판으로 만든 후 당사자들이 직접 실크스크린 작업을 해 3백50장의 포스터를 만들었다. 2009 칸 국제광고제 디자인 부문 그랑프리 수상작. 홍콩 매컨 월드그룹 출품.

2
'다코타 2'. 다코타는 북아메리카에 사는 한 인디언 부족의 이미지를 응용한 것으로, 패션 브랜드 랭글러가 동물적 본능을 잊고 사는 현대인에게 '우리는 동물이다'라고 주장하는 광고 시리즈 중 하나다. 2009 칸 국제광고제 프레스 부문 그랑프리 수상작. 프랑스 프레드&파리드 출품.

3
'펭귄'. 피아트 자동차가 환경에 충격이 덜 가도록 설계됐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2009 칸 국제광고제 옥외광고 부문 금상 수상작. 프랑스 마르셀 파리 출품.

4
'산업 공해－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게 하라'. 2009 칸 국제광고제 옥외광고 은상 수상작. 중국 JWT 출품.

ACT 환경전

2009 CANNES LIONS WINNERS FESTIVAL

매년 칸 국제광고제에서 환경 광고전을 여는
'액트 리스판서블(ACT Responsible)'은 비영리 광고단체로
책임 있고 친환경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국제 연대를 만드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그동안 70여 개국의 대행사로부터 4천여 편의 환경 광고를 수집했다.

2

A single
tin of paint
can pollute millions
of litres of water.

WWF

1 '물을 지켜라'. 2009년 칸 국제광고제 공식 전시장 바깥에 전시된 공익광고로 지구상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은 1퍼센트에 지나지 않음을 알린다. 미국 PIMC 출품

2,4 '페인트', '용해제'. 단 한 통의 페인트나 용해제가 수백만 리터의 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 2007년 칸 국제광고제 옥외광고 은상 수상작. 스페인 콘트라푼토 출품.

3 '배수구'. 유해물질 방출은 자연에 최악의 위협이다. 2006년 칸 국제광고제 옥외광고 은상 수상작. 스페인 콘트라푼토 출품.

'담배 해오라기'.
2006년 칸 국제광고제 옥외 광고 은상 수상작.
캘리포니아 해변 청소 홍보용 옥외 광고.
미국 굿바이 실버스타인&파트너스 출품.

환경 특별 사진전, 한국의 강 '강은 생명이다'

2009 CANNES LIONS WINNERS FESTIVAL

'한국의 강' 특별전은 칸 국제광고제 한국사무국이 기획한 전시회로 언론사 사진기자들이 찍은 한국의 강과 물 관련 사진 40점을 모아 전시하며, 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 전시 목적이 있다.

1 대구 팔공산 저수지에 사는 수달 한 쌍이 개구리 한 마리를 두고 다투고 있다. 동아일보 박영대 기자 사진.

2 장맛비로 불어난 저수지 위로 힘겹게 뛰어오르던 잉어 한 마리가 먹잇감을 찾기 위해 대기하던 해오라기와 눈이 마주쳐 놀란 표정이다. 매일신문 김태형 기자 사진.

3 기우제를 바라보는 동자승들. 스님들이 하늘에게 비를 청하는 동안 어린 동자승들은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거북등 마냥 갈라진 논바닥 위에서 기다린다. 수자원 공사 사진.

4 천수만 간척지 내 간월호에 가창오리 떼가 날아오르고 있다. 중앙일보 안성식 기자 사진.

5 흙탕물이 집어삼킨 보금자리를 떠나는 사람들. 낙동강 상류지역은 경사가 급해 상류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하류 지역에 큰 피해를 주곤 한다. 부산일보 정광삼 기자 사진.

남쪽으로… 남원으로 귀농 어떠십니까?

전북 남원 '도시민 유치를 위한 도농 상생 페스티벌' 열려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북 남원에서 '2009 행복한 남원, 도시민 유치를 위한 도농(都農)상생 페스티벌'이 열렸다. '농촌 인구 1퍼센트 늘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남원시 도시민유치협의회가 주최한 이 행사는 남원으로 귀농·귀촌하려는 도시민들의 호응이 높았다.

"조용하고 여유로운 삶을 꿈꾸면서 귀농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귀농을 하더라도 확실한 수입원이 있을지 알 수 없어서 망설였어요. 행사장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구정제·40·광주광역시

"체험마을 부스를 통해 향후 귀촌 시 구상하고 있는 일에 대해 사전 체험을 했어요. 남원에 귀농·귀촌협의회가 생긴다고 하니 귀농·귀촌인들의 구심점이 될 것 같습니다."

유명원·39·경기 용인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전북 남원시 어현동 요천 둔치 일대에서 열린 '2009 행복한 남원, 도시민 유치를 위한 도농 상생 페스티벌'에 참가한 사람들의 소감이다. 사단법인 남원시 도시민유치협의회가 기획해 추진한 이번 행사는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 지자체, 귀농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흥겨운 축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 페스티벌의 주요 행사로 귀농·귀촌인협의회 창립대회, 귀농·귀촌 교류포럼 및 간담회, 지역 주민과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과의 인연 맺기, 전원생활 체험, 판소리 공연 등이 다채롭게 선보였다. 귀농·귀촌에 관심을 갖고 행사장을 찾은 도시민들은 농촌체험마을 홍보 부스를 둘러보며 상담을 받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미 남원에 정착한 선배 귀농인들의 성공 사례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회사를 운영하다 2004년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산촌마을에 귀농해 곤달비 채소와 허브 농사를 짓고 있는 조선행(51) 씨는 사례 발표에서 "주변에 권유해 세 가족이 남원에 귀농했다"면서 "더 많은 분들이 내려와 현지 농업인들과 어울려 영농 법인을 설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시 도시민유치협의회 김상근(63) 회장은 "도농 상생 페스티벌의 목적은 도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하고, 도시민과 남원 지역민의 교류를 촉진해 남원에 귀농·귀촌인을 유입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협의회가 2007년부터 추진한 '농촌 인구 1퍼센트 늘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노령화되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남원에 도시민들을 유치하자는 취지다.

지난 8월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발표한 '도시 쇠퇴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84개 도시(광역시와 자치시) 중 남원의 노령화 지수는 8위다. 협의회 김용준(52) 부회장은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있지만 아직 남원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며 도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협의회는 홈페이지에 귀농·귀촌인들의 정착 편의를 위한 상담 창구 및 홈페이지에 농촌 마을별 빈집 정보, 귀농인 정보, 귀농 참여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있다. G

글·최은숙 기자

남원시 도시민유치협의회 agritourist.co.kr

'2009 행복한 남원, 도시민 유치를 위한 도농 상생 페스티벌' 홍보 포스터. 10월 29일 남원시에서 열린 '도농 상생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남원 나빌레라 오카리나 앙상블팀이 연주를 하고 있다(아래).

남원시 도시민유치협의회

4대강 살리기
제 28 화
글·이연수 그림·이호

음메돌이
음메순이님이 웹캠 대화를 수락하셨습니다
접속중

앗싸!
파스

님 이렇게 예쁘시면서 왜 그 동안 화상채팅 싫다고 하셨어요?
아이, 참. 몰라요.

댐 아랫동네 사신다고 했죠?
네.

음메~! 전 바로 그 옆 동네 살아요. 요즘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잘돼서 너무 좋죠?
네. 전 요즘 강물을 그냥 마신다니까요.

언제 기회 봐서 한 번 직접 뵙고 싶어요.
어머, 우리 처지에 무슨 번개….

4대강 사업으로 이런 외진 곳에서도 와이파이가 되는 좋은 시절인데 우리라고 번개팅 못 하라는 법 있나요?
어떡해~ 실물 보고 실망하시면…. 지금은 얼짱 각도인데….

도대체 노트북을 어디다 둔 겨?
깜짝

인터넷으로 사료 주문해야 허는디…. 오늘쯤 초보농부 님 블로그에 송아지 사진도 올라왔을 터인디….

아이고, 예방접종 시기 검색하다 여기 뒀던 걸 깜빡 했구먼!
덥썩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음메

동아DB

한국 육상 샛별 '하나'

23년 만에 200m 한국기록 경신 김하나

한국 여자 단거리에 샛별이 떠올랐다.
전국체전 여자육상 4관왕을 차지한 김하나 선수다.
뛰어난 실력과 수려한 외모로 '트랙의 김태희'로
불리는 그가 오랫동안 침체 상태인
한국 육상의 미래를 밝혀주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10월 20일 제90회 전국체전 여자일반 1백 미터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하나(24·안동시청) 선수는 다음 날 2백 미터에서도 23초69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23년 만에 한국기록을 갈아치웠다. 종전 기록은 86서울아시안게임에서 박미선이 세운 23초80.

이어 22일 4백 미터 계주에서도 정순옥, 김태경, 김초롱(이상 안동시청)과 함께 23년 만에 한국기록(45초33)을 다시 쓴 뒤, 23일 1천6백 미터 계주 금메달로 화려한 질주의 종지부를 찍었다. 단 1주일 만에 한국 육상 여자 단거리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4관왕을 차지한 김하나는 제90회 전국체전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되는 영예도 누렸다. 여자 선수가 MVP로 뽑힌 것은 2004년 양궁 박성현 이후 5년 만이다. 육상 단거리 종목에서 MVP가 나온 것은 사상 최초다. 1980년 제61회 대회부터 MVP를 선정한 이후 육상에서 총 10차례 MVP가 배출됐지만 모두 마라톤 등 장거리나 창던지기, 세단뛰기 등 필드 종목 선수였다.

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됐다는 표현이 딱 맞다. 뛰어난 운동실력에 '트랙의 김태희'라고 불릴 정도의 수려한 외모까지 그는 스타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육상 영웅을 찾던 언론은 그에게 매료됐다.

대한육상경기연맹 등으로부터 포상금만 2천만원 이상 챙겼고, 광고 출연 제의도 들어온 상태다. 올해를 끝으로 안동시청과의 계약이 만료되는 그를 스카우트하기 위한 실업팀들의 전쟁도 이미 시작했다. 계약금만 억대 수준이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하지만 김하나는 "큰 차이가 아니라면 나를 키워준 안동시청에 남고 싶다"며 '의리'를 최우선시하고 있다.

공부시키자는 선생님, 운동시키겠다는 어머니

고등학교 때까지 멀리뛰기 선수였던 김하나는 고질적인 아킬레스건 부상 때문에 실업에 오면서 단거리로 전향했다. 키 1백70센티미터, 몸무게 56킬로그램에서 나오는 파워와 유연성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안동시청 오성택 감독은 "김하나의 장점은 무엇보다

김하나 선수는 한국신기록 2개를 수립하며 4관왕에 올라 한국 육상의 미래를 밝게 했다.

떴다

어떤 훈련을 시켜도 소화해내는 성실함"이라고 말한다.

남자육상 2백 미터 한국기록(20초41) 보유자인 장재근 대한육상경기연맹 트랙 부문 기술위원장은 "한국 단거리 선수들은 2백 미터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김하나는 다르다"며 "기록만 봐도 엄청난 훈련량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2백 미터는 1백 미터보다 훈련 거리가 길고, 훈련의 강도도 더 세다. 하지만 힘든 2백 미터 훈련을 충실히 해두면, 1백 미터에서도 막판 스피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사인 볼트(23·자메이카)를 비롯해 세계적인 스프린터들은 1백 미터와 2백 미터를 겸업한다.

반면 한국 선수들은 쉬운 훈련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 단거리 선수가 희소하기 때문에 1백 미터만 출전해도 충분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운동선수로서의 도전정신은 사라지고 돈벌이의 수단만 남았다. 이것이 한국 육상이 정체된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김하나는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꿈을 좇았다. 오성택 감독은 "내년 시즌에는 2백 미터에서 20초 초반대 기록까지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나가 항상 성실한 훈련 태도를 유지하는 데는 멀리뛰기와 단거리 선수 출신인 어머니 이미자 씨의 영향이 컸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운동신경이 전혀 없는 줄 알았다"고 말할 정도로 딸은 얌전하기만 했다.

김하나의 질주 본능이 발휘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우연히 출전한 교내 체육대회 때다. 멀리뛰기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그는 정식 육상부가 없는 상황에서도 파주시 대회와 경기도 대회까지 석권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최고의 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중도에 운동을 포기한 어머니는 "그때 못다 이룬 내 꿈을 딸이 이뤄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시작한 대부분의 선수들과는 달리 김하나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육상부의 문을 두드렸다. 초등학교 시절 반장을 도맡을 정도로 성적도 우수했던 김하나였기에 도리어 선생님이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다.

문산여중 1학년. 정식 육상부 생활이 시작됐다. 고된 훈련과 외로운 숙소생활이었지만 김하나는 "어머니에게는 운동이 힘들다는 투정 한번 못 부렸다"고 털어놓았다. 트랙을 떠나 집에 돌아와도 "더 힘들게 운동해야 한다"는 채찍질이 돌아왔다. 매서운 코치가 버티고 있었던 셈이다.

김하나의 성실함은 어머니로부터 단련된 유산이었다. 딸이 한국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도 모르게 울컥해져서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말했다.

동아DB

김하나 선수는 실력과 미모를 겸비해 '육상계의 김태희'로 불리며 주목을 받았다.

이제 김하나는 1994년 이영숙이 세운 1백 미터 한국기록(11초49)을 향해 뛴다. 본인 최고기록(11초59)과는 0.1초 차다. 김하나는 "올겨울, 웨이트트레이닝을 통해 스피드를 더 보완해 2010년 상반기에는 1백 미터 한국기록을 깨고 싶다"고 밝혔다.

"매 경기 내 기록 깬다는 생각으로 최선 다해"

김하나가 1백 미터 한국기록마저 넘어선다면 남자육상 1백 미터, 2백 미터, 4백 미터 계주에서 모두 세계기록을 갖고 있는 우사인 볼트(23·자메이카)처럼 한국 여자 단거리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볼트와 마찬가지로 4백 미터 계주 순번도 3번이다. 4백 미터 계주의 1, 3번 주자는 곡선주로 1백 미터를, 2, 4번 주자는 직선주로를 뛴다. 볼트와 마찬가지로 김하나 역시 곡선주로에 강점이 있다.

안동시청 오성택 감독은 "보통 멀리뛰기 선수 출신들이 곡선주로에 강해 2백 미터를 잘 뛴다"고 했다. 2백 미터 트랙은 곡선주로 1백 미터, 직선주로 1백 미터로 이루어져 있다. 곡선주로에서의 기록단축 관건은 원심력과의 싸움. 김하나는 "고등학교 때 멀리뛰기를 하면서 쌓아둔 리듬감, 구름판 도약훈련을 하면서 키운 근력이 곡선주로에서 원심력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스타 반열에 올라선 김하나. 이제 미디어와 팬, 육상 관계자들의 지대한 관심도 또 하나의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연 김하나는 기록에 대한 모든 부담감을 뚫고, '하나'의 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큰 욕심보다 매 경기 내 기록을 깬다는 자세로 임했다"는 김하나의 당찬 목소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듯하다. G

글 · 전영희(스포츠동아 기자)

인제 방태산 숲길

태고의 숨결 간직한 나무의 바닷속을 걸었네

사람들의 발목을 수시로 잡을 만큼 화려한 방태산 오색 단풍 숲길.

가을이 소걸음으로 왔다가 잰걸음으로 달아나려 한다. 그 찰나에 절정의 단풍을 구경하기란 쉽지 않다. 꽃 피는 봄날보다 더 아쉽고 허망한 계절이 바로 이맘때의 단풍철이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일찍 단풍이 드는 영서 내륙의 단풍 명소는 절정기에 맞춰 찾아가기가 매우 어렵다. 수백을 헤아리는 우리나라 자연휴양림 가운데 단풍 곱기로 첫손에 꼽히는 인제 방태산자연휴양림이 그 대표적인 곳이다.

예부터 강원 내륙 첩첩산중에는 '삼둔사가리'라고 불리는 비장처(秘藏處 · 난리를 피해 숨어 살 만한 곳)가 전해온다. 달둔, 살둔, 월둔의 둔과 적가리, 연가리, 명지가리, 아침가리의 사가리가 바로 그곳이다. 홍천군과 인제군 일대에 흩어져 있는 삼둔사가리는 예나 지금이나 오지 중 오지로 손꼽힌다. 그중에서도 특히 방태산(1천4백35미터)의 북쪽 기슭에 자리한 적가리골은 골짜기가 깊고 숲이 울창해서 언제 찾아가도 속세와의 단절감이 유독 크게 느껴지는 곳이다.

단풍 곱기로 첫손 꼽히는 방태산자연휴양림

방태산은 구룡덕봉(1천3백88미터)과 함께 강원 인제군 기린면과 상남면의 경계를 이루는 고봉이다. 한때 군부대 주둔지였던 구룡덕봉은 정상까지 찻길이 개설돼 있어 지금도 사륜구동 차들이 심심찮게 들러 가곤 한다. 구룡덕봉 정상은 탁월한 조망을 자랑한다. 방태산과 구룡덕봉 일대의 산자락과 골짜기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고봉과 고봉을 잇는 굵은 멧부리들이 사방팔방으로 가없이 펼쳐져 있다.

대체로 산봉우리가 높고 숲이 울창하면 골짜기가 깊고 계류도 풍부하다. 방태산 북쪽 기슭에는 적가리골 이외에도 대골, 골안골, 지당골 등의 크고 작은 골짜기가 실핏줄처럼 뻗어 있다. 하지만 이 일대 여러 골짜기들의 맏형은 역시 적가리골이다.

적가리골은 항아리 속처럼 생겼다. 구룡덕봉 정상에서 내려다본 적가리골의 지형지세는 마치 동그란 항아리의 속처럼 아늑하고 은밀해 보인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6·25전쟁 직후까지 이곳에 살던 70여 가구의 주민들은 대부분 〈정감록〉 등과 같은 옛 비결의 예언을 믿고 멀리 함경도 등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한편으로 산줄기는 둥그렇고, 그 안쪽의 골짜기는 움푹하게 꺼져 있어서 '까마득한 옛적에 대형 운석이 떨어진 자리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산림문화휴양관에서 만나는 때 묻지 않은 자연 풍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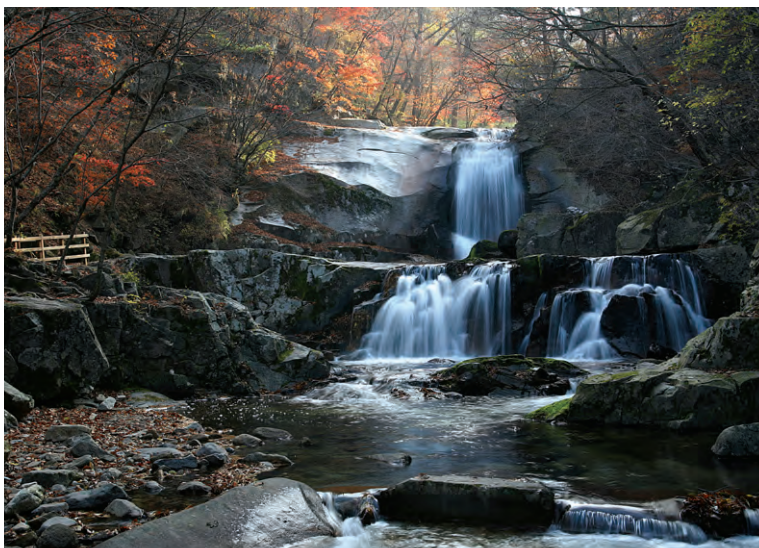
방태산 능선은 구룡덕봉을 사이에 둔 채 백두대간의 본줄기와 맞닿아 있다. 산마루의 양쪽 비탈에는 박달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등의 활엽수가 울창해서 그야말로 수해(樹海)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숲 바닥에는 고비, 관중 따위의 양치식물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열대 밀림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저마다의 빛깔로 철따라 피고 지는 여러 풀꽃들로 숲은 늘 화원을 이룬다. 봄철에는 복수초, 노루귀, 괭이눈, 처녀치마, 현호색, 꿩의바람꽃, 홀아비바람꽃, 얼레지, 모데미풀, 한계령풀, 큰연령초 등의 꽃이 피고 여름에는 금강초롱, 동자꽃, 참당귀, 하늘나리, 말나리, 여로, 절굿대 등이 지천으로 피고 진다. 그리고 가을이면 개미취, 두메부추, 쑥부쟁이, 투구꽃 등이 소담스럽게 피어난다.

방태산 적가리골의 비경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1997년 국립 방태산자연휴양림이 개장된 뒤부터다. 그 이전부터 개설돼 있

던 임도를 다듬어 진입로를 만들고, 계곡 중간의 풍광 좋은 곳에는 산림문화휴양관(통나무집), 야영장, 정자, 나무다리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그리고 이 휴양림의 유일한 숙박시설인 산림문화휴양관의 침실 앞쪽에는 커다란 통유리창이 설치돼 있어 커튼만 열어젖히면 적가리골의 때 묻지 않은 자연 풍광이 고스란히 방 안으로 들어온다.

적가리골의 비경은 산림문화휴양관을 지나면서부터 하나둘씩 자취를 드러낸다. 휴양관 바로 앞쪽의 물가에는 작은 폭포와 소(沼)가 곱게 물든 단풍과 조화를 이룬 마당바위가 있다. 거기서 길을 따라 4백 미터쯤 더 올라가면 적가리골 최고의 절경인 이단폭포(이폭포저폭포)가 나타난다. 각각 10미터, 3미터쯤 되는 두 개의 폭포로 이뤄진 이단폭포 주변에는 단풍나무를 비롯한 각종 활엽수가 울창하게 둘러쳐져 단풍 곱게 물든 가을날의 풍광이 매우 인상적이다.

이단폭포 위쪽으로도 길은 계속 이어진다. 원색의 단풍잎이 둥둥 떠가는 물길 위에는 작은 나무다리가 하나 걸쳐 있어 동화 같은 풍경을 자아낸다. 이 다리를 건너 조금 더 오르면 야영장

방태산 적가리골의 으뜸가는 절경으로 손꼽히는 이단폭포.

방태산계곡 탐방로에 놓인 나무다리를 건너는 등산객들.

방태산계곡 물가의
작은 바위에 내려앉은
오색 단풍.

이 나오고, 바로 그 위쪽에서 찻길이 끝난다. 그리고 본격적인 탐방로가 시작된다.

방태산의 깊은 속내를 더 알고 싶으면 정상까지의 산행도 시도해볼 만하다. 정상까지는 약 4킬로미터로 왕복 4, 5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찻길 종점에서부터 시작되는 숲체험 코스만 이용해도 풍광 좋고 숲이 울창한 방태산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총길이가 2킬로미터가량 되는 이 코스에서는 활엽수림, 조릿대숲, 낙엽송숲, 소나무숲 등 다양한 형태의 인공숲과 천연숲을 지나게 된다. 대체로 길이 평탄하고 뚜렷해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둘러보기 좋다. 순환코스인 이 탐방로를 둘러보는 데는 대략 2시간이 걸린다.

숲길에서는 최대한 여유 있고 자유스러워야 한다. 시간에 구애되지 말아야 한다. 걷다가 다리가 아프면 잠시 쉬어가고, 한 자리에 눌러앉아 있기도 힘들거든 다시 걸으면 된다.

잠시 초록빛 카펫을 깔아놓은 듯이 푸른 이끼로 뒤덮인 물가에 앉아서 자연이 쏟아내는 교향악에도 귀 기울여보자. 그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어느덧 자연과 자신이 하나임을 깨닫게 된다. 아니, 깨달음도 없고 느낌도 없이 그저 모두가 의자연(依自然)하여 너와 내가 따로 없다. '완벽한 평화의 경지'이며, '청산(靑山)도 절로 절로 녹수(綠水)도 절로 절로/산(山) 절로 수(水) 절로 산수간(山水間)에 나도 절로/……'라는 옛 시조 구절과 같은 경지에 이르게 마련이다. G

글과 사진 · 양영훈(여행작가)

여행 정보

숙박 방태산자연휴양림(033-463-8590) 안의 숙박시설은 산림문화휴양관이 유일하다. 객실도 5인실 4개, 6인실 5개 등 총 9개뿐이다. 여느 자연휴양림과는 달리 단독형 통나무집이 하나도 없어 비교적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자연과 하나 된 느낌을 만끽할 수 있다. 방태산자연휴양림 어귀에는 하늘빛펜션(033-463-5703), 솔잎향기펜션(033-463-0340) 등의 펜션과 민박집이 많다.

맛집 기린면 소재지(현리)에서 방동리 쪽으로 2킬로미터쯤 떨어진 418번 지방도변에 자리한 고향집(033-461-7391)은 두부전골, 두부구이, 모두부백반, 콩비지백반 등의 두부요리를 기막히게 잘하는 집이어서 일부러라도 꼭 한 번 찾아가볼 만하다. 이웃 주민들에게 사들인 국산 콩만 쓰는 데다 매일 필요한 만큼만 아침에 직접 만들어뒀다가 판다고 한다. 진동계곡 초입에 자리 잡은 진동산채가(033-463-8484)는 소문난 산채요리 전문점으로 산채비빔밥, 산골정식 등을 내놓는다.

▲ 고향집의 두부요리.

가는 길 서울(6번 국도) ➡ 양평(44번 국도) ➡ 홍천 ➡ 인제 신풍삼거리(446번 지방도) ➡ 미산면 상남삼거리(31번 국도, 좌회전) ➡ 현리 진방삼거리(418번 지방도, 우회전) ➡ 방동리 ➡ 방태산자연휴양림

'절친'의 효행 약속

일러스트 · 이우정

태종 8년(1408) 문과에서 장원급제한 어변갑(魚變甲 · 1380~1434)은 나이는 두 살 아래였지만 자기보다 6년 앞서 문과에 급제한 신장(申檣 · 1382~1433)과 아주 가깝게 지냈다. 초급 관리 시절 두 사람은 "열심히 임금께 충성을 다해 명성을 얻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 노부모를 봉양하자"고 약속했다.

먼저 어변갑의 관직 진출 및 승진 과정을 보자. 어변갑은 1408년 3월 급제하자마자 장원급제자의 관례에 따라 교서관(校書館)의 종6품직 부교리(副校理)에 제수됐고 이듬해 사간원(司諫院)의 정6품직 좌정언(左正言)에 임명됐다. 한편 6년 앞서 종9품직에서 출발한 신장은 태종 9년 정5품 예조정랑에 올랐으니 두 사람의 관직 차이는 속된 말로 '한 끗 차이'였다. 그만큼 장원급제의 프리미엄은 컸다.

성품이 곧았던 어변갑은 태종 10년 공신(功臣)을 직접 겨냥한 상소를 올렸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후 태종 때 내내 그의 승진은 정체 상태였다. 태종 13년에야 겨우 사간원 헌납(정5품)을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종 2년(1420) 집현전이 설치되면서 어변갑의 삶은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된다. 집현전은 좌의정 박은이 주도적으로 설치를 건의한 것으로 3월 16일 창설 당시 박은이 최고책임자인 영사(領事)였고 신장은 종3품 직제학(直提學), 어변갑은 종4품 응교(應教)에 제수됐다.

이때부터 어변갑은 세종의 큰 사랑을 받게 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조정을 떠나 부모님이 계신 고향 창녕에 가 있었다. 결국 집현전에 들어온 지 4년 후인 세종 6년(1424)) 집현전 직제학으로 있던 어변갑은 허리 아래쪽에 피부병이 생기자 그것을 핑계로 직제학을 내놓았다. 그런 이유라도 없었다면 세종이 사직을 받아들일 리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세종도 어변갑의 간절한 청을 마지못해 받아들인다.

세종이 어변갑을 얼마나 아꼈는지는 그의 사직 8년 후인 세종 14년 5월 17일자 실록의 기사가 증언하고 있다. 이때 세종은 특별히 어변갑을 정2품에 해당하는 사간원 지사(知事)로 임명했다. 파격적인 승진이었다.

'어변갑은 어머니가 늙었다고 하여 사직하고 돌아가 어머니를 봉양한 지가 오래이므로, 임금이 그의 효행(孝行)을 아름답게 여기시어 특히 이 벼슬을 준 것이었으나 또한 사퇴하고 취임(就任)하지 아니하였다.'

반면 어변갑과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신장은 귀향을 결단하지 못했다. 참판(종2품)에까지 오르게 되는 신장은 세종 11년 문과에 급제해 집현전에서 근무하던 어변갑의 아들 어효첨(魚孝瞻 · 1405~1475)을 만날 때마다 부끄러워해야 했다. "내가 자네 아버지와 함께 돌아가 어버이를 봉양할 것을 남몰래 서로 약속하였는데 자네 아버지는 결단성 있게 돌아갔으나 나 혼자서 언약을 저버렸으니 매우 부끄럽네."

하지만 약속 실행의 이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변갑과 신장은 훗날 자신들보다 더 유명하게 되는 자식 및 손자들을 두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참판 벼슬 거절하고 어변갑 귀향…각각 정승아들 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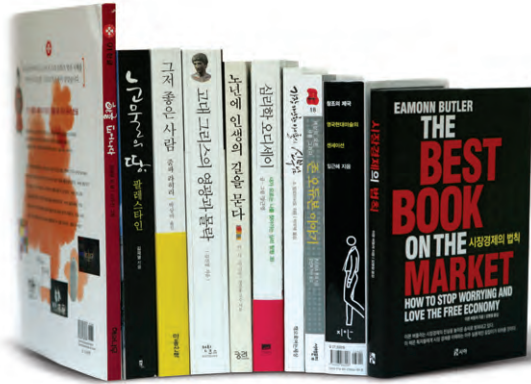
어효첨은 1449년 아버지의 마지막 관직이었던 직제학을 거쳐 세조 9년 이조판서에 오르고 성종 5년에는 중추부 판사(종1품)를 지낸다. 어효첨의 두 아들 어세겸(魚世謙 · 1430~1500)과 어세공(魚世恭 · 1432~1486)도 크게 출세를 한다. 어세겸은 강직한 성품과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성종 때 핵심요직을 두루 거쳐 마침내 아직 폭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던 연산군 초 좌의정에까지 오르게 된다. 세조 2년(1456) 형 세겸과 나란히 문과에 급제할 만큼 출중했던 어세공도 세조, 성종 시대 때 고속승진을 거듭했으나 형보다 14년이나 일찍 세상을 떠남으로써 정승의 지위에 오르지는 못했다.

유명하기로는 신장의 아들 신숙주(申叔舟 · 1417~1475)가 어변갑의 아들 어효첨보다 훨씬 앞선다.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오늘날에도 신숙주는 유명한 논란의 인물이지만 당시로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크게 현달했다. 세조와 한명회를 돕는 편에 서서 세조와 성종 정권의 안정에 누구보다 크게 기여해 마침내 영의정에까지 오르게 된다. 그러나 신숙주는 현달한 만큼이나 욕도 많이 먹어야 했다. G

웃음 만복래

글과 그림 · 최영순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 많이 웃어야 합니다.
– 도산 안창호

가을은 독서의 계절 겨울도 독서의 계절

철학자 사르트르는 "세계를 알게 된 것은 책을 읽으면서였다"고 말했다. 책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인생의 나침반과 같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늦가을의 시작인 11월에 읽을 만한 책을 선정했다.

책을 읽고 싶지만 어떤 책을 어떻게 골라 읽어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다. 이럴 때 다달이 좋은 책을 선정해주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책 선정 리스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문학, 역사, 철학 등 10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좋은책선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선정위원들은 소설가 신경숙,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 등 '책 마니아'로 소문난 이들이 대부분이다. 위원들은 자신들이 읽은 책 중에서 교훈이나 감동을 주는 것 위주로 매달 추천해준다.

11월에 읽으면 좋을 책으로 위원들이 추천한 책은 김재명의 〈눈물의 땅, 팔레스타인〉, 임근혜의 〈창조의 제국〉 등 10권이다. 먼저 눈길을 끄는 책은 소설가 신경숙 씨가 추천한 줌파 라히리의 〈그저 좋은 사람〉이다. 줌파 라히리는 헤밍웨이문학상,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저력 있는 작가 중 한 명이다. 〈그저 좋은 사람〉은 6편의 단편소설로 구성돼 있는데 테마는 '가족'이다. 가까이 있기에 오해도 많고 상처가 되는 가족 등 현대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가족상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1월의 추천 도서 10선 선정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이 추천한 안티쿠스의 〈고대 그리스의 영광과 몰락〉은 그리스의 역사나 여행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좋아할 만한 책이다. 노비를 포함해 인구 5만명 정도의 폴리스들이 오랜 세월 동안 독립적인 상태로 존속한 이야기, 베일 속에 싸여 있던 고대 그리스의 유적을 발굴한 사람들의 이야기 등 다양한 그리스 역사 이야기들이 쉴 새 없이 펼쳐진다. '고대 그리스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러도 손색없는 책이다.

최영주 포스텍 수학과 교수는 미국 조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화가 존 오듀본의 자서전 격인 책을 추천했다. 콘스탄스 루크가 지은 〈존 오듀본 이야기〉는 존 오듀본의 일에 대한 열정과 자연과 새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존 오듀본은 생활을 위해 고된 일을 하면서도 미국에 있는 모든 새를 그려 책으로 내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었고 결국 이뤄냈다. 최 교수는 "오듀본과 함께 숲속 여행을 하는 기분"이라며 "책 속에 삽입된 오듀본의 아름다운 새 그림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라고 추천사에 적었다. G

글 · 김민지 기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kpec.or.kr

그저 좋은 사람

장르 문학 | **저/역자** 줌파 라히리/박상미 | **출판사** 마음산책
책 내용 현대사회 가족상에 대한 이야기
추천자 신경숙(소설가)

고대 그리스의 영광과 몰락

장르 역사 | **저/역자** 김진경 | **출판사** 안티쿠스
책 내용 고대 그리스의 역사와 문화를 조망하는 역사서
추천자 이덕일(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심리학 오디세이

장르 철학 | **저/역자** 장근영 글, 그림 | **출판사** 예담
책 내용 유명 심리학자들의 이론을 알기 쉽게 쓴 책
추천자 김형철(연세대 철학과 교수)

눈물의 땅, 팔레스타인

장르 정치 사회 | **저/역자** 김재명 | **출판사** 프로네시스
책 내용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겪는 좌절과 분노에 대한 생생한 취재기
추천자 강정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장경제의 법칙

장르 경제 경영 | **저/역자** 이몬 버틀러/김명철 | **출판사** 시아
책 내용 시장의 모든 측면을 A부터 Z까지 샅샅이 설명해주는 경제서
추천자 이준구(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존 오듀본 이야기

장르 과학 | **저/역자** 콘스탄스 루크/김선희 | **출판사** 서해문집
책 내용 미국 조류학의 아버지 존 오듀본의 이야기
추천자 최영주(포스텍 수학과 교수)

창조의 제국

장르 예술 | **저/역자** 임근혜 | **출판사** 지안
책 내용 영국 현대미술의 과거와 오늘을 소개하는 책
추천자 김춘미(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가장 가난한 아이들의 신부님

장르 교양 | **저/역자** 소 알로이시오/박우택 | **출판사** 책으로여는세상
책 내용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온 신부님의 짧은 자서전
추천자 이한우(조선일보 출판팀장)

노년에 인생의 길을 묻다

장르 실용 | **저/역자** 어르신사랑연구모임 | **출판사** 궁리
책 내용 노년과 나이 듦에 대한 여덟 개의 시선을 담은 책
추천자 손수호(국민일보 논설위원)

한글, 피어나다

장르 아동 | **저/역자** 정해왕 외 글, 이수진 그림 | **출판사** 해와나무
책 내용 어린이에게 한글에 대한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책
추천자 서정숙(그림책 평론가), 이금이(아동 문학가)

더 큰 대한민국
2010 G20 코리아

유럽 27개국,
세계 최대 시장이 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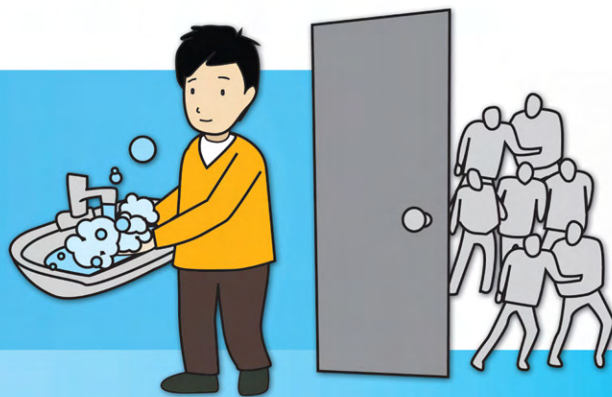
한 - EU FTA

대한민국 경제가 EU로 향합니다.
더 큰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GDP 18조 4천억 달러(2008년 기준)의
유럽시장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지켜주세요

우리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행동요령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외출 후에도, 평소에도 손 씻기를 습관화해주세요.

에티켓도 잘 지키고!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면,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는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사람 많은 곳은 조심조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사람이 많은 장소는 되도록 피해주세요.

걱정없이 회복을!

신종인플루엔자는 가벼운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증의 건강한 사람은 항바이러스제 치료 없이 회복됩니다.

편히 쉬고, 많은 양의 수분을!

건강한 사람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진료를!

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 비만, 임산부나 노인 분들은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